

# 忠峴十年史

# 기 증 도 서

|     |   |
|-----|---|
| 기증자 | 년 |
|-----|---|

|    |   |   |   |
|----|---|---|---|
| 일자 | 년 | 월 | 일 |
|----|---|---|---|



# 忠峴十年史



예수교  
長老會 忠峴教會



013278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 : 1)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평북 의주 출생  
 1917년 10월 24일생  
 고려신학교 졸업  
 의주군 주내면 청전교회 시무  
 용천군 동상면 성동교회 시무  
 의주군 월화면 추봉교회 시무  
 1939년 진사참배반대성명고  
 만주등지로 은거중 8·15 해방  
 평북 만포읍교회 설립  
 황주읍 재건교회 설립  
 서울 장충제건교회 설립  
 부산 서부교회 시무  
 부산 통일교회 설립  
 서울 충현교회 설립



조 칠 일 목사

평북 의주 출생  
1927년 12월 30일생  
총회신학교 졸업  
대구 시현교회 시무  
한국대학생 선교회 시무  
충현교회 시무



고 정 수 목사

평남 평양 출생  
1930년 11월 21일생  
총회 신학교 졸업  
성인교회 설립  
충현교회 시무



김 인 순 전도사

함남 원산 출생  
1900년 7월 17일생  
모혜사 고등성경학교 졸업  
온성교회 시무  
후암교회 시무  
정찰명원교회 설립  
충현교회 설립



이 명 탈 전도사

경남 진주 출생  
1902년 11월 28일생  
경남 고등성경학교 졸업  
거창 황산교회 시무  
진해 경화교회 시무  
부산 서부교회 설립  
부산 동일교회 설립  
충현교회 시무

# 장 로 일 동

.....오직 양부리의  
본이 되라. (벧전 5:3)



강 지 순



우 성 원



홍 수 정



김 천 준



한 명 옥



김 광 철



황 기 성



허 준



김 기 원



위 영 환



이 득 진



조 현 명



김 한 울



송 순 일



양 석 열



윤 종 순



권 사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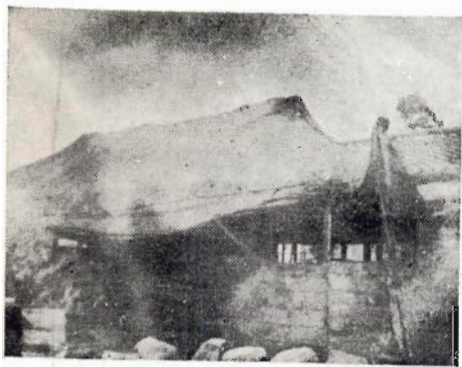
계수익 구경숙 김태복 김신도 김이순 김정수 김준열  
 김학이 박순은 방래은 양순화 윤수현 이진옥 이성애  
 이순열 이옥순 이창옥 임현복 최경한 최은상 한명덕



남 집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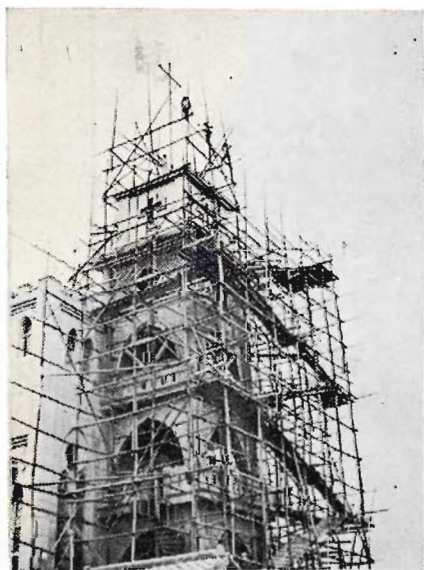
여 집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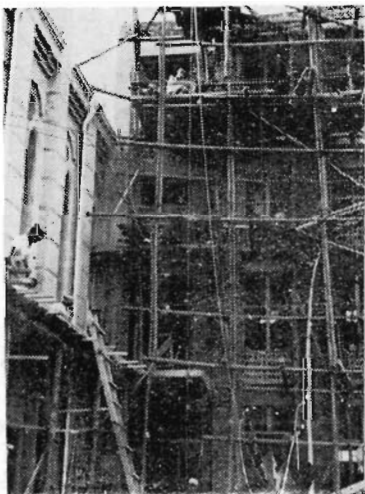
설립당시 천막교회



설립당시 통일종대



본관 건축



별관 건축

## 머 리 말

사울이 바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미디안 광야의 농민인 이드로집의 머슴살이로 40 년 동안이나 양을 치던 80 세의 늙은 목자가 430 년의 기나긴 애급의 잦은 학대와 압박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모세의 역사도 결코 인간의 수양이나 실력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우리는 조상들의 범죄와 우리들의 범한 죄로 인하여 6·25의 무서운 채찍에 맞아 남으로 남으로 쫓긴 나머지 분명히 남해의 물고기밥을 면치 못할 신세였으나 세계 만민이 동원되어서 또 다시 회복시켜서 휴전선 북방으로 원수들을 쫓아 버리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정(日政) 때의 조일좌(朝日座)란 극장을 무너뜨리고 또한 장총각이란 요정이 불 타 버리고 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충현 제단」을 쌓게 하시사 10 년 간 키우시는 증 놀라운 부흥을 주심은 역시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인자(仁慈)와 사랑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주신 선하신 선물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어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여기서 무궁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고 그 앞에 약속한 모든 일에 땀과 눈물의 정성을 몰아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로 비겁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그 앞에 신용 지켜 의롭게 담대하게 성도의 죽음을 작오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원합니다.

여기 「忠峴十年史」를 몰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영구히 되살려 가며 앞으로 더욱 더 그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삼가 세상에 이 책을 내어 놓습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셔서 더욱 더 새로운 결심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1963년 9월 일

김 창 인

# 목 차

## 머 리 말

|                 |    |
|-----------------|----|
| 제 1 장 설 립       | 13 |
| 1. 설립동기         | 13 |
| 2. 설립과정         | 14 |
| 제 2 장 발 전       | 15 |
| 1. 성전 건축과 교인 증가 | 15 |
| 2. 기관 및 사업      | 21 |
| 제 3 장 현 황       | 35 |
| 조직 및 활동         | 35 |
| 부 록             | 44 |
| 역대 당회장 일람       | 45 |
| 역대 교역자 일람       | 45 |
| 역대 장로 일람        | 46 |
| 역대 권사 일람        | 46 |
| 역대 집사 일람        | 47 |
| 역대 구역장·권찰 일람    | 51 |
| 역대 주일학교 교사 일람   | 56 |
| 지교회 일람          | 61 |
| 교세 일람           | 62 |
| 연 혁             | 63 |
| 기념설교            | 65 |
| 기념행사            | 77 |
| 후 기             | 78 |

# 제 1 장 설 립

## 1. 설 립 동 기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영육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민족이 슬퍼할 때 성도가 즐거울 리 없고 국가가 난경에 처했을 때 교회가 평안할 리 없는 것이다. 「존·칼빈」도 교회와 국가를 두 눈에 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진정한 국가 사이엔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이 다 같이 뼈저리게 느껴 왔던 것이다.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피압박 민족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의 선진 성도들은 고귀한 신앙 수호를 위해 무수한 수난과 순교를 당하였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감격을 주시었으나 혼돈과 무질서한 행위의 결과로 다시 6·25의 쓰라림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애급땅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구원 하심은 인간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심이었던 것과 같이 필경 깊은 바다에 밀려 빠졌어야 할 우리를 이 도성에 다시 돌려 보내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크신 뜻이 있었다. 이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절히 그리고 몸소 체험한 성도들 인지라 돌아오는 즉시 먼저 성전 수축을 하겠다는 뜨거운 정성은 서울 장안의 도처에 십자탑을 높이 세워 그 수(數)가 동란 전보다 배를 헤아릴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초토화된 남산 동북 기슭엔 목정·오장·쌍림등 일대의 음란과 방탕한 소굴에도 한 빛이 비쳐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10년 전 보기에도 초라하였던 동일 등대요, 오늘의 대 중현교회의 전신이었던 것이다.

## 2. 설 립 과 정

1949년 1월 3일 장충동 2가의 한 도롱이에서 심령부흥회가 개최되었다. 이 때의 강사는 김창인 전도사로서 이 부흥회를 계기로 장충교회가 세워졌으나 이듬해 우리 민족 앞엔 고난의 날 6·25등란이 엄습하였던 것이다.

아끼고 가꾸어 온 양떼들도 비운의 1·4후퇴시에는 흩어져 가야만 했고, 눈물로 지켜 온 성전마저 뒤에 두고 떠나가지 않을 수 없었으니 당시의 성도 중에는 오늘의 충현 제단을 받드는 한명덕·이창욱·이원규·최석주·김정욱·임창국·유순녀·노영숙·이순열·황성렬·장봉도·이현실·박복녀·이옥순 제씨(諸氏)도 볼 수 있었다.

1951년 4월 부산 서부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김창인 전도사는 다시 뜻을 같이하는 교인들과 더불어 1952년 6월 28일에 부산시 동대신동에 대지 99 평을 구입하여 72 평의 교회 건물 신축에 착공, 그 해 11월 22일에 완공을 보았으니 바로 오늘의 동일교회로서 이 교회 설립에 헌신한 역군들은 거의가 후일에 서울 동일동대를 세우게 한 중들이기도 하다.

1953년 늦은 봄, 수복의 기운이 점차 익어감에 따라 모두가 돌아 갈 준비에 바빴을 때 김창인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의 수복 대책도 자못 활발하여 김천준 집사를 먼저 상경시켜 교회설립기지 물색을 위촉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장충교회 교인들도 이에 동의하여 장충교회 건물을 정리함으로써 신실할 교회기지 자급에 충당하게 되었다.

1953년 8월 하순경 시내 성동구에 있는 성산교회에서 2 차에 걸쳐 동일교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 김천준·이학주·홍수정·이창욱·한명덕 등 제씨가 그 위원이 되었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숨은 봉사가 오늘의 충현교회를 싹트게 하였던 것이다.

## 제 2 장 발 전

### 1. 성전 건축과 교인 증가

본판이 준공되기까지

1953년 폐허된 서울 거리에는 민족의 설움을 안은 초가을이 찾아 왔다.

삶을 이어 보려고 허둥지둥 남쪽으로 떠났던 무리는 다시 발길을 돌려 서울로 향하는 행렬을 잇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한강(漢江)을 건너오게 되었으며 모여든 형제들은 상봉의 기쁨과 함께 1953년 9월 6일(주일) 인현동에 소재하는 한명덕 집사택 2층에서 18명의 교우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고 죄(罪)가 많은 곳에 은혜(恩惠)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적인 민족의 비운(悲運)을 안은 채 부르짖는 다락방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

치참한 전란으로 인하여 적수공권이 된 이들은 믿음의 위대한 창조적 역사를 입증하기 시작했으나 그간 물색 중이던 대지(현 충현교회 일부) 310 평과 건물 19 평을 65 만환에 계약하고 더욱 분발하던 중 김창인 전도사의 상경과 함께 그들의 기도와 노력은 1개월 후인 10월 11일 현재 그 수가 60명으로 증가하여 을지로 2가 이창옥 권사택으로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한편 10월 26일에는 기쁨과 감사에 넘친 교우들이 새로 구입한 14 평의 건물로 이사하고 첫 예배를 드리니 이 날이 10월 28일(수)이었다.

그 후 제직회에서 의뢰했던 본관 설계도를 11월 1일 인준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집회수가 110 명으로 증가하여 14 명의 건물에 연쇄천막을 2 차에 걸쳐 60 여평을 세워 임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작성된 설계에 의하여 동년 12월 12일 건평 104 평 예산 3,600만 원의 본관을 착공케 되었다. 그러나 동년 12월 27일 현재 다가온 동절과 증가되는 교세(장년 163명, 유년 121명)는 그간 면밀한 계획 밑에 재원(財源) 및 자재(資材) 확보에 힘써 오던 건축공사에 한 층 더 긴급성을 띠게 하였다.

승공(勝共)과 통일의 대망(待望)이 휴전이라는 민족적 절망과 전상(戰傷)에 찢기고 무너진 영(靈)과 육(肉) 그리고 눈물겹던 이 땅의 애절(哀切)한 사정들이 한숨과 함께 해가 저물어 버리고 마침내 영육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새해가 돌아왔다.

1954년 새해를 맞은 교회는 회당의 포부 밑에 새로운 조직과 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1월 24일 제직회에서는 건축실행위원을 임명하고 다시 2월 7일 주일에는 특별 헌금을 작성케 하니 당일 거출(釐出)된 헌금만도 37,000원이었으며 이미 작성되었던 건축 설계도를 수정 재작성하는 동시 임명된 건축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정케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 건축실행위원회

|         |           |        |         |
|---------|-----------|--------|---------|
| 위원장 강지순 | 부위원장 우성원  | 서기 김천준 | 부서기 성장수 |
| 회 계 최재성 | 부 회 계 장리영 | 위원 김기환 | 반선관     |

이 후에는 교회 건축에 따른 제반 계획, 진행 등 일체 사업은 본 위원회가 담당케 되었다.

그러나 원태가 방대한 건축 사업이었으므로 재정에 있어서는 여간 곤경을 면치 못하였으나 전 교인들의 힘을 모아 특별헌금과 수시 헌금으로 충당하여 오던 중 동년 2월 28일 부산 동일교회가 보내 온 특별연보 47,000원의

진달은 많은 힘과 위로를 더하게 되어 건축의 제반 기초적 공사에 큰 진전을 보게 하였다.

동년 9월 5일 주일에는 교인수가 장년 328명, 유년 129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드디어 10월에는 기초공사 착공 및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바야흐로 건축공사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동년 11월 7일 건축실행위원회에는 회계 최재성 장로의 사임과 황기성 집사의 선출되는 인사 이동이 있었고 12월 1일에는 진전하는 건축공사에 정초(定礎)예배를 드리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이 해도 저물어 다가온 동한으로 건축 사업은 일단 중단되어 내년 제 계속될 공사의 준비기간으로 들어갔다.

1955년도 해동(解凍)과 함께 중지했던 건축 공사 사업은 다시 계속하였으나 재정적 곤궁은 원만한 진행을 보지 못한 채 정체 상태로 내려오던 중 전 교우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은혜로 동년 4월에 당시 미 8군 산하부대 군목과에 근무하던 본 교회 교인인 정현경양의 주선으로 미군 후방기지 사령관인 「메이커」 소장의 특혜를 받아 미화(美貨) 15,000 달러를 원조 받게 되었으며 동년 6월에는 시멘트 8,300 포 및 기타 자재 일체를 인수하여 본격적인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년 7월 24일에는 대지 38평과 건물 1동을 교환 정리하는 한편 본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제직회는 건축 실행 위원회를 개편 임명하니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다.

#### 건축실행위원회

|    |     |     |     |     |     |    |     |
|----|-----|-----|-----|-----|-----|----|-----|
| 회장 | 최재성 | 총무  | 김천준 | 회계  | 황기성 | 서기 | 김상철 |
| 위원 | 우성원 | 박창근 | 장지순 | 김광철 | 이연숙 |    |     |

1955년도 가을이 저물어 갈 무렵 그간 새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우들의 정성어린 기도의 성원은 마침내 10월 10일 오후 2시 감격에 넘치는 찬

층으로 상량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2개월간 온 교우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헌신은 성전 건축에 박차를 일층 가하여 오던 중 드디어 11월 6일 300여 명의 교인이 본관에서 처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다음 달 12월 17일에는 연전평 294 평의 우아(優雅)한 성전을 총 공사비 3,600 만환, 소요일수 736 일로 준공하니 특별한 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으며 당시 교인수는 장년 567 명, 유년 325 명이 회집되었다.

#### 별관이 준공되기까지

본관이 완성된 1955년 10월 28일 이 후 1961년 1월 8일까지 약 5년 동안에 발전하는 교회는 날로 교인의 수가 격증하여 장년 754 명, 유년 269 명, 중·고등학생 120 명으로 본관은 이미 차고 넘쳐 유년과 중·고등학생들의 예배 장소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2월 5일 제직회는 별관 신축 기금 확보를 위한 특별헌금을 가결케 되어 우선 제직이 2월 26일, 일반교인은 3월 5일에 각각 헌금하게 되었다.

1961년 2월 19일 제직회는 건평 180 평(지하실 포함), 공사비 2,600만 환 예산으로 별관 신축을 가결코 건축 설계도를 우선 전문가에 위촉하여 동년 3월 5일 설계비 25만 환을 들여 별관 설계도를 완성케 되었다.

한편 전 교우들의 계속적 합심기도와 헌금은 드디어 건축실행위원회를 임명케 되고 건축사업을 운영케 하니 임명된 위원은 아래와 같았다.

#### 별관 건축실행위원회

위원장 김천준    부위원장 홍수정    서기 김기정    회계 오중락  
위 원 우성원    김기원    위영환    유병양    이현실    유영순

이미 작성 완료된 설계에 의하여 3월 12일부터 정지공사(整地工事)와 기

초준비공사(基礎準備工事)가 시작되었으며 3월 20일에는 건축 대지 불하  
수속도 완결되었으며 자재로 시멘트 2,100 포가 입하되어 기초 공사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년 3월 24일에는 지하실 토굴작업이 정리되었고 4월 1일에는 목재(木  
材), 벽돌 등이 대량 확보됨으로 공사는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년 4월 27일에는 2층 슬라브(slab) 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관 동편 벽을  
철거 예배석을 증설케 하고 5월 7일 제직회는 건축실행위원을 다시 보강 임  
명하였다.

동년 5월 12일에는 3층 슬라브(slab)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으며 한편 내부  
미장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뜻하지 않던 5·16 혁명이 일어나 계엄령(戒嚴令)  
이 선포되어 이에 따른 제반 통제는 우리 공사 전반에 걸쳐 지장을 초래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및 헌금은 이 난관을 능히 극복하여 본관 건축의 매와는 완전히 다른  
용성한 교회의 기세를 과시(誇示)했으니 동년 7월 1일에는 4층 상량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동 27일 경에는 본관 서편에 목사관 3칸, 여전도사 사택으  
로 2칸, 사찰실 3칸 및 창고용으로 2칸 정도의 연 26평 연쇄 건물도 시공케  
되었으며 동년 9월 28일에는 드디어 연평 180평 총 공사비 약 3,000여만 환  
의 4층 별관이 완공되었으니 이 날은 마치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기념  
일이었으며 성도들의 기쁨은 측량할 길 없었다. 당시 교인수는 장년 830명,  
중·고등 145명, 유년 360명으로 증가하였으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을 수 없었다.

#### 변소가 준공되기까지

본래 이 변소 공사는 1961년 2월 5일 별관 건축과 동시에 건축키로 했던  
바 별관 공사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시 진행을 못한 채 동년 9월 별관  
공사가 일단 끝났고 다음해 사업으로 미루게 되었던 것이다.

1962년 4월 1일 제직회는 다시 이 변소 건축을 위하여 연평 10평 예산

200만 환으로 건축 공사를 가결하고 동년 5월 22일부터 착공케 되었다.

제정 조달은 동년 5월 23일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 그 후 교우들의 계속적인 헌금으로 충당하였던 바 동년 5월 26일에는 자재 확보를 마치고 5월 28일부터 지하 탱크 토굴 공사가 착수되었다.

그 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6월 10일(주일)에는 또 다시 뜻하지 않은 화폐개혁령이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건축 사업에는 적지 않은 고충을 가져 왔으니 곧 이 날이 주일이었고 당일중 신화(新貨) 교환을 위한 신고를 마쳐야 하였으나 성수주일(聖守主日)을 생명으로 아는 우리는 당일 주일에는 일체 수속을 아니하였고 다음 날 관계 당국에 호소하여 보았으나 관계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힘을 다해 기도하는 중 진행하던 공사는 드디어 7월 30일 철근 콘크리트 벽돌 건물 10 평의 새로운 변소가 완성되었고 동결되었던 구화(舊貨)도 정부 당국의 추가 신고 허락으로 교환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을 감사치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교회 구내 공사(構內工事) 일체는 일단락을 짓게 되었으며 계속 부흥되는 교회는 동년 12월 16일 현재 교인수 장년 1,060명, 중·고등 199명, 유년 706명으로 증가케 되었다.

#### 대지 확장을 위한 사택 구입까지

1963년 초에 이르러 교회는 더욱 부흥하여 교인수가 계속 증가되어 1월 6일 제직회는 이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교회 증축을 목표로 인근지대(隣近地帶)에 대지 구입을 가결하고 물색 중 교회 서편에 인접한 연 62평 3층 건물을 동년 3월 11일 270만 원에 계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초과된 이 건물 구입은 시대적 경제사정의 악조건으로 곤경(困境)을 면치 못하였으나 온 교우들의 불굴의 기도와 정성어린 헌금은 동년 8월 2일 드디어 전액을 완불케 되어 우선 목사관으로 사용케

되었다.

이 후 교인의 격증은 7월 첫 주일부터 2부 예배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당 주일 집회에는 장년 1,195 명, 중·고등학생 237 명, 유년 697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 2. 기관 및 사업

### 당 회

1957년 김창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시까지는 경기노회가 파송하는 여러 당 회장을 모시게 되었다.

ㄱ. 1953년 12월 22일 제1대 당회장으로 강진선 목사가 피임되었다.

(i) 1954년 1월 24일 주일 제1차 성례식을 거행.

ㄴ. 1954년 1월 24일 고흥봉 목사(남산교회 시무)가 제2대 당회장으로 피임되었다.

(i) 강지순 최재성 장로 취임 및 우성원 장로 장립(1954년 5월 9일)

(ii) 초대 당회가 구성되다.

ㄷ. 1954년 11월 21일 장석인 목사(한국성서대학 교수)가 제3대 당회장으로 피임되었다.

ㄹ. 1955년 8월 8일 강진선 목사(원남교회 시무)가 제4대 당회장에 피임되었다.

(i) 황해성 박창근 장로 취임(1955년 12월 24일)

(ii) 홍수정 장로 장립(1956년 6월 9일)

(iii) 당회원 7명으로 증가.

ㅁ. 1956년 8월 16일 전철홍 목사(중앙교회 시무)가 제5대 당회장에 피임되었다.

(i) 김천준 장로 장립(1956년 12월 18일)



(ii) 김창인 목사 안수(1957년 9월 7일)

ㄴ. 1957년 9월 7일 김창인 목사가 제6대 당회장에 전담(專擔)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i) 김광철 한명옥 장로 장립(1959년 10월 9일)

(ii) 황기성 장로 장립(1960년 4월 7일)

(iii) 조천일 목사 부임(1961년 1월 6일)

(iv) 1961년 1월 8일 날로 강화되던 당회원 중 최재성 박창근 장로의 사정상 해임.

(v) 허준 장로 취임, 김기원 위영환 장로 장립(1961년 4월 5일)

(vi) 1961년 9월 8일 전교회가 애도하는 중 황해성 장로 별세.

(vii) 고정수 목사 안수(1961년 9월 4일)

(viii) 이득진 장로 취임 및 조현명 김한홍 송순일 장로 장립(1963년 4월 5일)

이로써 자라나는 본교회 당회는 설립 후 10 주년을 맞는 1963년 현재 협동장로 양석렬 윤종순씨를 포함하여 19 명의 당회원을 갖게 되었다.

## 제 직 회

1954년 처음으로 제직회가 조직되니 회원 35명(남 14, 여 21)이었으며 매월 첫 주일을 정기 제직회로 지정하여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 10 년간 자라나는 제직회원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ㄱ. 1954년 초대제직회(회원 35명) 조직.

ㄴ. 1955년도 회원 66명(남 28, 여 38)으로 증가되었으며 각 부서 조직.

ㄷ. 1956년도 제직회원 전년도와 같음.

ㄹ. 1957년도 회원 70 명으로 증가.

ㅁ. 1958년도 회원 90 명으로 증가.

ㅂ. 1959년도 회원 91 명으로 증가.

ㅅ. 1960년도 회원 100 명으로 증가.

- . 1951년도 회원 118 명으로 증가.
- ㄷ. 1962년도 회원 131 명으로 증가.
- ㄹ. 1963년도 회원 144 명으로 증가됨.

## 권 찰 회

1955년부터 구역 권찰회를 조직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권찰들의 각 구역 심방 및 금요일 저녁의 구역 예배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매월 3차 주일은 정기 구역장·권찰회를 가지고 구역내의 신앙 부흥을 기하여 오고 있는 바 조직 당시인 1955년의 16 개 구역은 10 년 후인 1963년 현재 26 개 구역으로 확장되었고 권찰회장 고정수 목사가 이 회를 주관하고 있다.

## 교육연구위원회

1962년에 이르러 날로 부흥하는 교회 실정에 호응(呼應)하여 성도들의 신앙 향상과 질적 부흥을 목적으로 교육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장 조천일 목사 주관 아래 위원 구성은 주일학교 각 부 부장과 차장 그리고 성가 부 부장과 차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1963년 이래 향후 10개년간 「천국 일꾼을 키우자」의 표어 밑에 연구 실천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주일학교 각 부의 활동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 중에 있다.

### ㄱ. 성경 통신 강좌

매월마다 전 교인들의 신앙 향상을 위하여 성경통신강좌를 실시하여 성경 지식을 고조(高調)하고 있다.

### ㄴ. 성경 특별 공부

매주 월요일 밤마다 전 교우들이 성경특별공부회로 회집하여 오는 바 1963년 9월 현재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 주 일 학 교

1953년 9월 교회가 설립함에 따라 동년 11월 1일 유년주일학교가 개교

되었으며 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흥 발전하여 1963년 현재는 각 부(장년·청년·고등·중등·유년) 별 교육이 원활히 실시되고 있다.

#### ㄱ. 장년부

1956년에 시작하여 초대 부장 황혜성 장로가 지도하였으며 반사 17명이 이에 협조하였다.

1957년부터 1959년 간은 홍수정 장로가 제2대 부장으로, 1960년 이래 1963년 현재까지는 한명옥 장로가 제3대 부장으로 시무 중에 있다.

장년부의 성경 강해는 매 주일 아침 대예배 전 시간으로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역대 지도자로는 문춘운 목사, 조천일 목사가 담당하였고 1963년 현재는 고정수 목사가 계속 담당하고 있다.

#### ㄴ. 청년부

1963년도 주일학교 교육 방침에 따른 각 부 편성과 함께 이미 조직되어 오던 단려회 회원들로 주일학교 방침에 따른 성경 강해를 매주 하오 1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부장에는 황기성 장로 지도에는 조천일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 ㄷ. 고등부

고등부가 편성되기까지는 1953년부터 실시하여 오던 중·고등부 사업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1953년 이래 중·고등부 교육은 단일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역대 부장은 황기성 김천준 최재성 우성원 홍수정씨 등 여러 장로와 역대 지도에는 김창인 목사를 비롯하여 김관형 목사 최 훈 강도사의 노고를 또한 잊을 수 없는 일이다.

1963년에 이르러 현저하게 부흥 발전하는 중·고등부는 교회의 교육 방침에 따라 중·고등부를 분립시키게 되었다.

1963년도 고등부장에는 위영환 장로 차장에는 김기정 집사를 비롯하여 지도에 신예철 전도사와 보조 교사 수 명이 이를 돕고 있다.

#### (i) 매주 정기 집회

① 주일 정식 학생 예배를 주일 아침 10시 10분부터 학생회관에

서 회집하고 있다(지도 조천일 목사)

②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 실시(지도 신예철 전도사)

## ㄹ. 중등부

1963년도 처음으로 발족한 중등부는 부장 조현명 장로와 차장 이종운 선생의 직접 지도와 보조 교사 수 명이 이를 돕고 있다.

### (i) 정기 집회

① 매 주일 정식 학생 예배를 아침 9시부터 학생회관에서 회집하고 있다(지도 조천일 목사)

②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실시(지도 이종운 선생)

## ㄱ. 유년부

1953년 11월 1일 개교 이래 1963년 현재까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년부는 아래와 같다.

### (i) 1953년 11월 1일 개교

부장 최재성 장로

부감 홍수정 집사

재적학생 6명

### (ii) 1954년도

교사 27명

학생 80명

### (iii) 1955년도

부장 박창근 장로

교사 40명

학생 285명

졸업생 40명(남 15, 여 25)

(iv) 1956~1959년까지는 매년 평균 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왔다.

### (v) 1960년도

부장 최재성 장로

부감 김한홀 집사

지도 홍종만 선생

학생 303 명

(vi) 1961년도

부장 김광철 장로

부감 김한홀 집사

지도 고정수 강도사

학생 342 명

(vii) 1962년도

부장 및 부감 전년과 같음

지도 임승원 전도사

교사 73 명

학생 443 명

졸업 51 명

(viii) 1963년도

부장 부감 및 지도 선생 전년과 같음

날로 부흥하는 유년부는 지금까지 10 년간 총 359 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으며 교사 총수 87 명과 재적 학생 803 명이 매 주일 회집 되고 있다.

## 성 가 대

1953년 교회가 설립된 후 1954년까지는 학생 성가대가 대 예배를 봉사하던 중 1954년 4월 첫 주일부터 청년 성가대가 발족되어 초대 대장 박창근 장로가 이를 지휘했다. 이 후 성가대의 발전 사항은 아래와 같다.

### ㄱ. 청년 성가대

(i) 매 주일 대(낮)예배와 교회 명절 및 특별 행사의 찬양을 담당

하고 있다.

(ii) 역대 대장

성장수 최재성 박창근 김광철 허 준

(iii) 역대 지휘

박수는 구두희 이남철 홍종만 정재동 김치석 이삼은 안소겸

L. 학생 성가대

1953년 9월 교회 설립 후 제일 먼저 조직을 본 학생 성가대는 1954년 3월까지 주일 낮예배 찬양을 담당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매 주 저녁 예배의 찬양을 돕던 중 1963년도에는 교회의 교육 계획에 따라 중·고등 성가대로 분립되는 발전을 보게 되었다.

(i) 고등 성가대

1963년 7월 첫 주일부터 고등학생 주일 예배 및 주일 대예배 제2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휘에는 한영석 선생이다.

(ii) 중등 성가대

발전하는 교회 각 기관에 호응하여 1963년도에 새로 조직된 중등 성가대는 196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중등학생 주일예배와 함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지휘에는 신예철 전도사이다.

각 기관 단체

주의 제단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본 교회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 남녀 전도회와 면려회 및 어린이회 등이다.

7. 남전도회

1957년 1월 2일 오후 2시에 남전도회가 창립 총회를 열었다.

당일 모인 회원은 23명이었으며 임원진을 선출하니 아래와 같았다.

회 장 박창근 장로

부회장 황기성 집사

그 후 2월부터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본연의 사명을 위하여 세대 성

북구 돈암동에 소재하는 동암교회의 개척 전도를 시작케 되었고 교역자 장여재 목사를 파송했다.

타오르는 전도의 열은 회원들로 다시 분발케 하여 동년 8월부터 복음전도지를 인쇄하여 반포하게 되었으며 회원들의 정성어린 회비와 특별 헌금은 빈민들의 구제 사업에도 손을 뻗치게 되었다.

2년 후인 1959년에는 신임원으로 회장에 홍수성 장로, 부회장에 김광철 장로가 선임되었으며 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계획이 실천되었으니 성경 연구회가 매 월 1차씩 회집되었고, 성경토론회 및 신앙간증회등도 활발이 진행되었었다.

1961년도에는 다시 선임된 회장 김광철 장로, 부회장 김철준 장로를 비롯하여 전 회원이 더욱 전도회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i) 6월 14~17일 4일간 신앙강좌 실시

(ii) 전도지 5만 매를 인쇄하여 전 회원이 전도대가 되어 이를 반포케 했다.

1962년도에는 회장에 김광철 장로가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한명옥 장로가 피선되었으며 회원들은 가일층 힘을 모아 동년 2월부터 유년주일학교와 협동하여 경기도 소사에 소재하는 현 상리교회를 세워 개척 전도에 임했으며 김덕호 전도사를 파송했다.

매 월 1차씩 회집되는 월례회에서는 지육부 주관으로 성경 퀴즈를 실시하여 회원들의 성경 지식을 함양시켜 왔다.

특기할 것은 1957년 2월 이래 개척 전도에 힘써 오던 시내 돈암동 동암교회가 1962년 12월 31일부로 자립케 되니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다.

1963년 현재 회장 김광철 장로, 부회장 송순일 장로의 임원진과 함께 복음전도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오던 중 동년 8월 13일~17일 간 경기도 소사 상리교회에 특별 전도 집회를 열고 회원들이 출동하여 복음을 축호 전도하였으며 특별 집회에서도 많은 은혜를 피차에 받게 했다.

#### ㄴ. 여전도회

1954년 1월 17일에 여전도회가 창립 총회를 열게 됨으로 발족했다. 초대 회장은 이창옥 권사였으며 이 후 전 회원은 힘을 모아 교회 전도 구제 사업 등 제반 교회 봉사에 적극 참가하였다.

특기할 것은 1958년~1959년 동안 의정부 소재 의정부 중앙교회를 개척 전도하여 자립시켰으며 1959년 9월에는 다시 충남 부여 소재 부여 제일교회를 개척 전도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부여 제일교회는 김관형 목사를 파송하였으며 이 후 교회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는 중 감나무 제배 및 돼지 구입 등을 주선하여 1963년 현재에 이르렀다.

역대 회장으로서는 이창옥 이연숙 최경한 이옥순 제씨의 수고를 기억케 된다.

#### ㄷ. 면려회

교회내에는 청년, 고등 및 중등 면려회가 조직되어 각각 그 소임을 담당하고 있다.

##### (i) 청년 면려회

충현 기독교청년면려회가 조직된 것은 1956년 1월 15일 회원 26명으로 시작했다. 초대 회장으로 송일던씨를 선임하고 교회 성가대 및 유년주일학교를 실질적으로 돕게 되었다.

1957년도에는 성장수씨가 회장에 취임했고 주로 대내적인 활동을 통해 교회 청년 운동을 하고 있었다.

1958년도 회장에는 홍종만씨가 선임되면서 침체상태의 청년회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시내 상도동의 천애불구원을 중심으로 교회 설립을 목표로 특별 전도단을 파견하여 교회 설립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즉 맹인, 앓은방이, 팔 병신, 꼽추 등 인간 지옥을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회원들은 전심으로 이에 협조했다.

1960년도에 이르러 이종윤씨가 회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청년회는 세대 교체를 한 느낌을 주었는데 대학생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어 매 주일 오

후 1 시의 집회를 갖고 신앙적 결속을 굳게 하였으며 대내 조직과 대외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61년도에 들어서기까지는 사실상 청년회 전임 지도자가 없던 중 동년 11월 조천일 목사가 종교교육 목사로 취임함으로써 청년회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우선 명칭을 대학생회로 개칭하였고 황기성 장로가 부장에 취임했다. 그 해 8월에는 충북 세산교회와 강원도 사곡교회에 전도대를 파송했고 10월에는 시내 성북구 삼양동 지대에서 개척 교회를 목표로 특별 전도를 하여 지교회인 삼양교회를 설립했다. 또한 1960년부터 회보를 월간으로 발행해 오던 것을 1961년 12월 그 이름을 「헬시바」로 개칭하고 년 1회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1962년도 회장에는 김경세씨가 선임되었다. 조천일 목사의 지도 방침에 따라 개인 신앙을 확고부동한 자리에 올리기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그 열매로 개인 전도를 적극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그 한 모습으로 그 해 8월 하기 전도단을 편성코 본 교회 산하에 있는 삼양, 성인, 상리, 세산 제교회에 파견하여 특별 전도 운동을 벌였다.

자라나는 청년들은 충현의 앞날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리라.

1963년도에는 주수일씨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하기 방학에는 무지와 기아에 시달리는 농촌을 위하여 전도대(회장 이하 5명)를 편성하여 충청북도 단양 지방에 파송 전도케 했다.

1963년 9월 현재까지 매 주일 청년 특별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 (ii) 고등학생 면려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가르쳐 주시던 주님의 음성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울려 준다. 비록 몸은 작고 지식과 지혜는 적으나 주께서 적은 나귀를 쓰시듯 자라나는 학생들을 불러 주시기만 하면 역사는 새 빛을 얻고 공간은 울동할 것이다.

교회가 설립하면서부터 여기에 착안한 나머지 1953년 11월 24일 기독교

학생회를 조직하고 김창인 전도사가 직접 학생 지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김창호군이 당선될 때 회원은 20여명이었다. 1954년 터는 김관형 전도사가 그 지도를 담당하면서 회장의 바톤은 상반기에는 원창근, 하반기에는 이춘선에게로 옮겨졌다. 1955년도 학생 집회수는 55명 정도에 이르렀다.

1956년에는 기독교학생회를 학생신앙운동(S.F.C)으로 개칭하고 최 훈 전도사로 하여금 1960년도까지 지도를 담당케 했다.

자라나는 학생 운동은 이로부터 날로 부흥을 더하게 되었다. 물론 때로는 무서운 악몽의 시기도 있었으나 주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은 속속 이 기관을 통해 배출하게 되었다.

1961년도부터 최 훈 강도사의 사임으로 조천일 목사가 부임하여 지도를 담당하게 되었고 1963년 부터는 신예철 전도사가 담당케 되었다. 이들은 매 토요일 집회를 갖고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치활동을 장려하여 교회 생활을 훈련시키고 있다. 특기할 것은 그 후 충북 옥천에 있는 세산교회를 개척하였고 1962년에는 시내 천호동에 있는 성인교회를 보조하고 중·고등학생 전 회원이 힘을 다해 전도하고 있다.

1956년도 이후 역대 회장은 김계진 원창근 박성배 한경일 홍정일 김성주 김상정 노광현 박동희 정홍근 유척규 유 현 김형일 김상규 등이 역임케 되었다.

### (iii) 중등학생 면려회

1963년은 중현이 열 살 되는 해인 바 날로 발전하는 학생회는 중전의 중·고등 학생회를 분립시켜 중학생회를 새로 조직하게 되어 제1대 회장에는 윤형철, 부회장에는 송태환 김관옥이 피선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시험기를 거쳐 왔으니 1958년에 잠시 중등부만을 분립하였던 바 다시 고등부와 통합되었고 1962년에 다시 이를 분립할 목표로 중학생회를 대표하는 자치 실행 위원을 두고 중학생 회원들의 신앙 운동을 돕게 한 바 있다.

1963년도 현재 중학생 면허회는 자치 활동으로 매 주 토요일 집회를 열어 성경 특별 강좌를 실시하는 바 구약의 예언자 연구 발표, 성경 퀴즈 등을 통한 신앙 운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고등부와 함께 성인교회 보조에 힘을 다하고 있는 한편 가두 전도에도 힘을 쓰고 있다.

#### (iv) 어린이회

유년주일학교의 어린이회는 1959년 이전에 새싹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고 1960년도에 이르러 어린이회로 개칭되었다. 이종윤 선생 지도 하에 각반 대의원을 선정하고 실행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총회를 소집하여 고영진군이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어린이회의 첫 번 행사로는 그 해 3월 둘째 주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였던 바 여기서 교육적인 효과도 많이 거두게 되었다.

어린이회는 「충현어린이」 회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주일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고 도서실을 구비하는 등 자치 활동에 다대한 발전을 보게 했다. 특히 어린이 헌신 예배와 율례회는 어린이회의 자랑인 바 이 때의 회비와 헌금은 성로원을 비롯한 여러 곳의 구제 사업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매 월 표어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역대 지도 선생으로는 허준수 임승원 김성관 김정자 조선근 여금자 등 제씨가 수고를 해 왔다. 또한 역대 회장으로는 정홍식 송태환 김종철 김정식 김성호 군 등이 선임되었다.

1963년도 어린이회는 더욱 발전하여 회장에 정재복군이 피선되어 활발히 육성되고 있다.

#### 개척 교회

충현은 부흥한다. 충성(忠誠)스런 종들이 높고 험한 고개(峴)를 넘기 위해 땀을 흘렸고 피를 말리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도들은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하게 되었으니 행군의 나팔 소리는 산골에도 천막에도 그리고 토굴 속에도 울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니 아래와 같았다.

#### ㄱ. 동암교회

1957년 2월부터 본교회 남전도회에서 시내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동암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에 힘을 다하여 오던 바 1962년 12월 31일부로 이를 자립시켜 1963년 현재 장여재 목사가 시무 중에 있다.

#### ㄴ. 세산교회

충북 옥천군 두메에 자리 잡고 있는 세산교회는 1959년 9월 본 교회 중·고등 학생회가 개척하고 자라 오던 중 1962년 1월부터 본 교회 전도부 주관으로 계속 개척하고 있다. 1963년 현재 김서룡 목사가 교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집회수는 장년 24명, 유년 20명이다.

#### ㄷ. 부여 제일교회

1959년 9월부터 여전도회 회원들의 정성으로 가꾸어진 부여교회는 김관형 목사가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교회 대지 80평 중 45평을 더 매입하였으며 1963년 현재 장년 43명, 유년 57명이 모이고 있다.

#### ㄹ. 성인교회

시내 성동구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인교회는 1959년 정초에 대한어머니회 보조로 고정수 전도사가 개척했다. 장년 15명, 유년 30명으로 첫 회집을 가졌었으나 1960년 9월 본 교회가 이를 보조케 되었으며 1963년도 현재는 학생회가 보조하여 오고 있으며 백성룡 목사가 교역을 담당하고 있다. 매 주 집회수는 장년 65명, 유년 80명이다.

#### ㄴ. 삼양교회

1961년 10월 청년회원 수명이 시내 성북구 삼양동 난민 주택지를 찾아가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지극히 적은 힘 같았으나 지금은 본 교회 청년회원들의 뜨거운 정성과 함영진 전도사의 목회로 장년 100여명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중·고등 학생 23명, 유년 190명

의 회집을 하고 있다.

#### ㄴ. 상리교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읍에 자리잡고 있는 상리교회는 현재 시무하고 있는 김덕호 전도사가 1961년 7월 12일 축호 방문을 시작하여 세워진 교회인 바 1962년 2월부터 본 교회 유년주일학교와 남전도회의 특별 보조로 개척전도 중 1963년도에는 남전도회의 개척교회로 삼고 장년 25명, 유년 60명이 모이고 있다.

#### ㄷ. 연암교회

시내 서대문구 연희동에 자리잡고 있는 연암교회는 1963년 3월부터 본 교회 여전도회가 개척 교회로 삼고 교역자 홍경수 목사와 이기옥 여전도사가 시무중 현재 집회수는 장년 40명, 유년 100명이 모이고 있다.

1963년 8월 26일에는 교회 대지 200 평을 본 교회 보조로 구입하였고 앞으로 교회 건축을 계획 중에 있다.

## 제 3 장 현 황

### 조직 및 활동

본 교회 조직 사업 현황은 당회를 위시하여 제직회 및 재정 위원회와 교육 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는 장년, 청년, 고등, 중등, 유년 주일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남·여 전도회를 비롯하여 청년, 고등, 중등, 유년(어린이회) 먼려회 등의 여러 단체가 있다.

이상의 여러 기관과 단체는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1) 교 역 자

|         |       |       |  |  |  |
|---------|-------|-------|--|--|--|
| 담 임 목 사 | 김 창 인 |       |  |  |  |
| 부 목 사   | 조 천 일 | 고 정 수 |  |  |  |
| 여 전 도 사 | 김 연 순 | 이 명 단 |  |  |  |

#### (2) 당 회

|      |      |      |      |      |      |  |
|------|------|------|------|------|------|--|
| 목 사  | 김 창인 | 조 천일 | 고 정수 |      |      |  |
| 시무장로 | 강 지순 | 김 천준 | 김 광철 | 김 기원 | 김 한홍 |  |
|      | 송 순일 | 우 성원 | 위 영환 | 이 독진 | 조 현명 |  |
|      | 한 명옥 | 허 준  | 홍 수정 | 황 기성 |      |  |
| 협동장로 | 양 석열 | 윤 종순 |      |      |      |  |

### (3) 제 직 회

회 장 김 창 인

서 기 김 기 정

회 계 윤 중 성

부서기 최 석 주

부회계 이 태 규 임 광 식

#### ㄱ. 서 무 부

부 장 김 천 준

차 장 김 창 배

#### ㄴ. 전 도 부

부 장 홍 수 정

차 장 윤 중 순 유 앵 손

#### ㄷ. 구 제 부

부 장 김 기 원

차 장 이 현 실

#### ㄹ. 영 선 부

부 장 우 성 원

차 장 임 현 덕

#### ㅁ. 예 전 부

부 장 이 득 진

차 장 오 중 탁

부 원 곽 은철 문 인택 최 석주 김 신도 신 옥희

#### ㅂ. 봉 사 부

부 장 계 수 익

차 장 김 봉 재

부 원 김 애채 신 군 자 신 옥희 유 앵 손 윤 순 탄

이 명 자 이 신 일 이 현 실 이 회 연 정 양 순

## 스. 미 화 부

|     |       |     |       |
|-----|-------|-----|-------|
| 부 장 | 김 한 흘 | 차 장 | 이 창 옥 |
| 부 원 | 곽효일   | 김봉필 | 민원옥   |
|     | 신계택   | 이옥녀 | 임광식   |
|     |       |     | 장의순   |
|     |       |     | 최임상   |

## 오. 감 사 부

|         |         |        |
|---------|---------|--------|
| 위 원     | 위 영 환   | 송 순 일  |
| 남제직 51명 | 여제직 93명 | 계 144명 |

## (4) 권 찰 회

### ㄱ. 임 원

|     |       |     |       |
|-----|-------|-----|-------|
| 회 장 | 고 정 수 | 서 기 | 송 순 일 |
|-----|-------|-----|-------|

### ㄴ. 구역장 및 권찰

|           |          |                   |
|-----------|----------|-------------------|
| 금 호 구역 :  | 구역장—조 순호 | 권찰—조 순호           |
| 왕십리 구역 :  | 구역장—김 경철 | 권찰—김 상권, 이 풍숙     |
| 약 수 구역 :  | 구역장—김 한울 | 권찰—문 봉계 유 앵순 합 송현 |
| 신 당 구역 :  | 구역장—이 태규 | 권찰—박 선자 민 원옥 지 소지 |
| 장춘 1 구역 : | 구역장—최 범석 | 권찰—서 상연 이 경옥      |
| 장춘 2 구역 : | 구역장—신 계택 | 권찰—박 영덕 임 풍숙      |
| 광 회 구역 :  | 구역장—신 태호 | 권찰—양 정백 지 대숙      |
| 쌍 립 구역 :  | 구역장—안 인성 | 권찰—홍 순복 허마리아 강성춘  |
| 중 부 구역 :  | 구역장—곽 은철 | 권찰—이 회열 이 덕순 남 경우 |

충 무 구역 : 구역장—오 중락  
 묵 정 구역 : 구역장—윤 종성  
 을 지 구역 : 구역장—최 석주  
 필 동 구역 : 구역장—문 인택  
 효자동 구역 : 구역장—이 명자  
 인 현 구역 : 구역장—김 성훈  
 화 원 구역 : 구역장—이 상순  
 종 로 구역 : 구역장—김 기정  
 돈 암 구역 : 구역장—김 창배  
 미아리 구역 : 구역장—이 규민  
 회 현 구역 : 구역장—임 광식  
 용 산 구역 : 구역장—박 창수  
 서대문 구역 : 구역장—송 순일  
 동대문 구역 : 구역장—유 병양  
 창 신 구역 : 구역장—양 재돈  
 청량리 구역 : 구역장—이 기정

권찰—김 선복 최 순자 김 초연  
 권찰—문 정자 신 군자 장 정자  
 김 영남  
 권찰—손 연자 오 영숙 이 창순  
 권찰—백 의덕 윤 순탄  
 권찰—이 명자  
 권찰—곽 의숙 김 정임 정 봉조  
 권찰—곽 효일 김 명자 김 정례  
 권찰—박 온준 이 신일  
 권찰—김 봉필 박 복녀  
 권찰—김 운실 이 미래 송 보경  
 권찰—김 춘선 방 계운  
 권찰—오 경신 오 희명 박 기련  
 권찰—김 연일 안 숙자  
 권찰—김 봉재 지 중봉  
 권찰—노 승녀 김 덕민  
 권찰—남 숙덕

#### ㉔. 활 동

매 주 금요일마다 심방.  
 월 2 회 구역예배.

#### (5) 교육 위원회

#### ㉕. 조 직

위원장 조 천 일 서 기 황 기 성  
 위 원 김 광철 김 기정 김 한흠 송 순일 위 영환 이 종운  
 인 승국 조 현명 최 석주 한 명옥 허 준 박 기련

## 나. 활동

본 회의 사업은 교회 전반에 걸친 기독교 교육 문제의 연구 및 계획 실천에 임하고 있다.

### (6) 재정 위원회

#### 가. 조직

|     |       |       |                       |
|-----|-------|-------|-----------------------|
| 위원장 | 김 광 철 | 서 기   | 조 현 명                 |
| 위 원 | 김 기 원 | 김 기 정 | 김 천 준 허 준 황 기 성 김 봉 선 |
|     | 박 석 심 | 유 앵 손 | 이 선 욱 이 현 실           |

## 나. 활동

교회 전체의 재정적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7) 주 일 학 교

|     |       |      |       |
|-----|-------|------|-------|
| 교 장 | 김 창 인 | 담당목사 | 조 천 일 |
|-----|-------|------|-------|

#### 가. 장 년 부 <지도 고정수>

|     |                |        |       |
|-----|----------------|--------|-------|
| 부 장 | 한 명 욱          | 부 감    | 송 순 일 |
| 서 기 | 김 창 배          |        |       |
| 반 사 | 12 명           |        |       |
| 학 생 | 400 명          |        |       |
| 활 동 | 매 주 오전 10시~11시 | 성경 공부. |       |

ㄴ. 청 년 부 <지도 조천일>

부 장 황 기 성 차 장 임 승 국  
학 생 50명  
활 동 매 주 오후 1시~2시 성경 공부.

ㄷ. 고 등 부 <지도 신예철>

부 장 위 영 환 차 장 김 기 정  
반 사 9명  
학 생 211명  
활 동 매 주 10시~11시 성경 공부.

ㄹ. 중 등 부 <지도 이종윤>

부 장 조 현 명 차 장 이 종 윤  
반 사 9명  
학 생 216명  
활 동 매 주 9시~10시 성경 공부.

ㄹ. 유 년 부 <지도 임승원>

|            |            |       |
|------------|------------|-------|
| 부 장 김 광 철  | 부 장 김 한 훈  | 박 기 련 |
| 총 무 최 석 주  | 서 기 이 태 규  |       |
| 회 계 박 기 련  |            |       |
| 신입과장 인 현 덕 | 고등과장 박 창 수 |       |
| 초등과장 신 태 호 | 유치과장 신 옥 회 |       |
| 중등과장 김 경 철 | 음악과장 심 상 선 |       |
| 전도과장 양 재 돈 | 심방과장 박 은 철 |       |
| 지육과장 조 선 근 | 축위과장 박 선 회 |       |

시청각교육과장 박 용 삼 봉사과장 김 영 실  
 어린이회지도과장 조 선 근  
 교 사 85명  
 학 생 807명  
 활 동 매 주 오전 9시부터 예배 및 성경 공부,  
 매 월 1 회씩 노방 전도.

#### (8) 성 가 부

부 장 허 준 차 장 최 석 주

##### ㄱ. 장년 성가대

지 휘 안 소 결 반 주 김 신 성  
 대 원 34명

##### ㄴ. 고등부 성가대

지 휘 한 영 석 반 주 백 수 자  
 대 원 50명

##### ㄷ. 중등부 성가대

지 휘 신 예 철 반 주 윤 은 예  
 대 원 45명

##### ㄹ. 유년 성가대

지 휘 심 상 선 반 주 송 철 원  
 대 원 30명

## (9) 각 기관 단체

### ㄱ. 남전도회

회 장 김 광 철  
서 기 임 현 덕  
회 계 임 광 식  
전도부장 이 득 진  
봉사부장 한 신 호  
섭외부장 김 성 훈  
지육부장 김 기 정  
구제부장 윤 종 순  
음악부장 김 한 흘  
회 원 54 명

부 회 장 송 순 일  
부 서 기 김 창 배  
부 회 계 김 형 권  
차 장 양 재 돈  
차 장 광 은 철  
차 장 신 태 호  
차 장 이 태 규  
차 장 문 인 택  
차 장 박 창 수

활 동 소사 상리교회 개척.

### ㄴ. 여전도회

회 장 이 옥 순  
서 기 박 석 심  
회 계 김 봉 재  
전도부장 임 현 복  
구제부장 유 앵 손  
사교부장 이 현 실  
회 원 224 명

부 회 장 광 효 일  
부 서 기 이 덕 순  
부 회 계 노 영 숙  
봉사부장 이 회 연  
성미부장 신 군 자

활 동 부여 제일교회, 연희동 연암교회 개척.

### ㄷ. 청년먼려회

회 장 주 수 일

부 회 장 조 선근 박 선희

총 무 박 용삼  
전도부장 노 광현 최 정자  
회우부장 양 홍석 여 금자  
회 원 50 명  
활 동 시내 삼양교회 개척.

회 계 김 경자  
지육부장 이 병학 이 선애  
음악부장 심 상선 구 광덕

## ㄹ. 고등학생 면려회

회 장 김 상규  
총 무 원 응철 김 영신  
전도부장 오 응기 한 용자  
봉사부장 지 우목 정 영선  
회 원 121 명  
활 동 시내 성인교회 개척,

부 회 장 박 승호 홍 덕순  
재정부장 황 일선 한 명실  
교육부장 김 일동 한 은숙  
음악부장 김 형균 유 은숙

매 주 토요일 오후 신앙강좌.

## ㄱ. 중등학생 면려회

회 장 송 태환  
총 무 홍 성인 박 한숙  
전도부장 김 석만 김 혜신  
봉사부장 이 원희 권 석애  
회 원 131 명  
활 동 시내 성인교회 개척,

부 회 장 김 정삼 김 태업  
재정부장 조 세영 황 옥경  
교육부장 오 홍삼 김 기인  
음악부장 이 현 오 혜경

매 주 토요일 오후 신앙강좌.

## ㄴ. 어린이 면려회(어린이회)

회 장 정 재복  
총 무 김 국환  
회 계 김 형숙  
지육부장 장 계영 강 정자  
봉사부장 장 수채 김 순희  
회 원 80 명  
활 동 전도 구제 봉사 등 자치활동.

부 회 장 장 계영 김 혜옥  
서 기 조 성실  
전도부장 강 대길 홍 덕희  
음악부장 이 명숙 김 영준



## 부 록

역대당회장일람  
역대교역자일람  
역대장로일람  
역대권사일람  
역대집사일람  
역대구역장·권찰일람  
역대주일학교교사일람  
연혁  
지교회일람  
교세일람  
기념설교  
기념행사



## 역대 당회장 일람

| 성명      | 시무기간                     | 비고                              |
|---------|--------------------------|---------------------------------|
| 1 대 강진선 | 1953. 12. 22~1954. 1. 24 | 부산 통일교회 겸임                      |
| 2 대 고흥봉 | 1954. 1. 24~1954. 11. 21 | 서울 남산교회 겸임                      |
| 3 대 장석인 | 1954. 11. 24~1955. 8. 8  | 서울 성서대학 교수 겸임                   |
| 4 대 강진선 | 1955. 8. 8~1956. 8. 16   | 서울 원남교회 겸임                      |
| 5 대 전철홍 | 1956. 8. 16~1957. 9. 7   | 서울 중앙교회 겸임                      |
| 6 대 김창인 | 1957. 9. 7~현재            | 1957. 9. 7 안수<br>1958. 9. 30 위임 |

## 역대 교역자 일람

| 성명      | 시무기간                     | 비고     |
|---------|--------------------------|--------|
| 김창인 (남) | 1953. 9. 12~현재           | 전도사—목사 |
| 노윤석 (남) | 1954. 10. 10~1955. 9. 18 | 전도사    |
| 홍신균 (남) | 1955. 10. 9~1956. 4. 30  | 강도사—목사 |
| 김지화 (남) | 1956. 1. 21~1956. 4. 8   | 전도사    |
| 최훈 (남)  | 1956. 4. 8~1960. 10. 23  | 강도사    |
| 문춘운 (남) | 1956. 7. 18~1960. 5. 1   | 강도사—목사 |
| 고정수 (남) | 1960. 10. 16~현재          | 강도사—목사 |
| 조천일 (남) | 1961. 1. 6~현재            | 목사     |
| 김연순 (여) | 1953. 10. 11~현재          | 전도사    |
| 이명달 (여) | 1958. 10. 1~현재           | 전도사    |

## 역 대 장 로 일 랑

|     | 성 명   | 취임 · 장립년월일        | 피택년월일        | 비 고              |
|-----|-------|-------------------|--------------|------------------|
| 1 대 | 강 지 순 | 1954. 5. 9 (취임)   | 1954. 4. 25  | 현재 시무            |
| 1 대 | 최 재 성 | 1954. 5. 9 (취임)   | 1954. 4. 25  | 1961. 1. 8 시무 정지 |
| 1 대 | 우 성 원 | 1954. 5. 9 (장립)   | 1954. 4. 25  | 현재 시무            |
| 2 대 | 황 해 성 | 1955. 12. 24 (취임) | 1955. 5. 29  | 1961. 8 별세       |
| 2 대 | 박 창 근 | 1955. 12. 24 (취임) | 1955. 5. 29  | 1961. 1. 8 시무 정지 |
| 3 대 | 홍 수 정 | 1956. 6. 9 (장립)   | 1955. 6. 9   | 현재 시무            |
| 4 대 | 김 천 준 | 1956. 12. 18 (장립) | 1955. 5. 29  | "                |
| 5 대 | 김 광 철 | 1959. 10. 9 (장립)  | 1959. 4. 12  | "                |
| 5 대 | 한 명 옥 | 1959. 10. 9 (장립)  | 1959. 4. 12  | "                |
| 6 대 | 황 기 성 | 1960. 4. 7 (장립)   | 1959. 4. 12  | "                |
| 7 대 | 허 준   | 1961. 4. 5 (취임)   | 1960. 10. 23 | "                |
| 7 대 | 김 기 원 | 1961. 4. 5 (장립)   | 1960. 10. 23 | "                |
| 7 대 | 위 영 환 | 1961. 4. 5 (장립)   | 1960. 10. 23 | "                |
| 8 대 | 이 득 진 | 1963. 4. 5 (취임)   | 1962. 10. 28 | "                |
| 8 대 | 김 한 홀 | 1963. 4. 5 (장립)   | 1962. 10. 28 | "                |
| 8 대 | 송 순 일 | 1963. 4. 5 (장립)   | 1962. 10. 29 | "                |
| 8 대 | 조 현 명 | 1963. 4. 5 (장립)   | 1962. 10. 28 | "                |

## 역 대 권 사 일 랑

### 1954년

김 이순 이 연숙 이 창옥 최 상은 (4명)

### 1955년

구 경숙 김 순옥 김 이순 이 연숙 이 창옥 최 상은 한 명덕 (7명)

### 1956년

구 경숙 김 이순 이 연숙 이 창옥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7명)

1957년

구 경숙 김 성실 김 이순 이 연숙 이 창옥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8명)

1958년

구 경숙 김 성실 김 이순 이 명달 이 연숙 이 창옥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1959년

구 경숙 김 대복 김 성실 김 이순 김 준열 윤 수현 이 창옥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10명)

1960년

구 경숙 김 대복 김 성실 김 이순 김 정수 김 준열 윤 수현 이 성애 이 창옥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12명)

1961년

구 경숙 김 대복 김 성실 김 이순 김 정수 김 준열 윤 수현 이 성애 이 창옥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12명)

1962년

계 수익 구 경숙 김 대복 김 성실 김 이순 김 정수 김 준열 방 태은 윤 수현 이 선옥 이 성애 이 창옥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15명)

1963년

계 수익 구 경숙 김 대복 김 신도 김 이순 김 정수 김 준열 김 학이 박 순은 방 태은 양 순화 윤 수현 이 선옥 이 성애 이 순렬 이 옥순 이 창옥 임 현복 최 경한 최 상은 한 명덕 (21명)

## 역 대 집 사 일 람

1954년

<남>

김 광철 김 기환 김 천준 성 장수 원 경식 이 원규 한 명옥 홍 수정 황 기성 (9명)

<여>

계 수익 구 경숙 김 상권 김 장복 박 순은 백 현옥 윤 수현 윤 순애 이 생춘 이 선옥 이 학자 장 리영 장 인승 지 영실 허 마리아 (15명)

1955년

<남>

김 광철 김 기환 김 상철 김 종수 김 천준 김 한훈 김 호손 박 창호 성 장수

송 일면 원 경식 이 상순 이 원규 조 준 최 원명 한 명옥 허 위 홍 수정  
황 기성 (19명)

<여>

강 영채 강 인순 계 수익 김 복미 김 봉선 김 봉필 김 상권 김 송자 김 순옥  
박 복녀 박 순은 백 원순 백 현옥 문 봉제 윤 수현 윤 순애 이 도입 이 명자  
이 생춘 이 선옥 이 성애 이 순렬 이 학주 장 리영 장 인송 지 계순 지 영실  
최 덕순 최 미덕 허 마리아 (30명)

1956년

<남>

김 광철 김 기원 김 기환 김 상철 김 천준 김 한홍 노 명덕 박 창호 성 장수  
송 일면 이 상순 이 원규 한 명옥 허 위 홍 수정 황 기성 (16명)

<여>

강 영채 강 인순 계 수익 김 복미 김 봉선 김 봉필 김 상권 김 송자 김 순옥  
박 복녀 박 순은 백 원순 백 현옥 문 봉제 성 귀명 윤 수현 윤 순애 이 도입  
이 명자 이 생춘 이 선옥 이 성애 이 순렬 이 학주 이 현실 장 리영 장 봉도  
장 인송 지 계순 지 영실 최 덕순 최 미덕 허 마리아 (33명)

1957년

<남>

김 광철 김 기원 김 남규 김 상철 김 수남 김 익수 김 재창 김 한홍 박 창호  
성 장수 송 일면 이 상순 이 원규 한 명옥 황 기성 (15명)

<여>

강 영채 강 인순 계 수익 김 대복 김 복미 김 봉선 김 봉필 김 송자 김 학이  
노 영숙 박 복녀 박 은순 박 은준 백 원순 둔 봉제 오 히명 윤 수현 윤 순애  
이 도입 이 명자 이 생춘 이 천옥 이 성애 이 옥순 이 학주 이 현실 장 리영  
장 봉도 장 인송 정 양순 지 계순 지 영실 최 덕순 최 미덕 허 마리아 (35명)

1958년

<남>

김 광철 김 관호 김 근우 김 기원 김 기정 김 남규 김 상철 김 수남 김 익수  
김 창배 김 한홍 김 형권 박 창수 박 창호 송 일면 오 진갑 윤 종성 이 규민  
이 상순 이 원규 조 현명 한 명옥 허 위 홍 종만 황 기성 (25명)

<여>

강 영채 계 수익 김 대복 김 연일 김 복미 김 봉선 김 봉제 김 봉필 김 송자  
김 신도 김 애채 김 영준 김 학이 노 영숙 박 복녀 박 석심 박 순은 박 은준  
백 원순 문 봉제 안 경신 오 경신 오 희명 윤 수현 윤 순애 이 도입 이 명자

|      |      |      |      |      |      |      |       |      |
|------|------|------|------|------|------|------|-------|------|
| 이 선옥 | 이 성애 | 이 순렬 | 이 옥순 | 이 학주 | 이 현실 | 이 회연 | 장 리영  | 장 봉도 |
| 장 선봉 | 장 인승 | 정 랑순 | 조 순호 | 지 계순 | 지 영실 | 최 미덕 | 허 마리아 |      |

1959년

(44명)

<남>

|      |      |      |      |      |      |      |      |       |
|------|------|------|------|------|------|------|------|-------|
| 김 광철 | 김 근우 | 김 기원 | 김 기정 | 김 남규 | 김 상철 | 김 선운 | 김 수남 | 김 익수  |
| 김 창배 | 김 한훈 | 김 형권 | 박 창수 | 박 창호 | 송 일면 | 오 진갑 | 위 영환 | 윤 종성  |
| 이 규민 | 이 상순 | 이 원규 | 조 현명 | 한 명옥 | 홍 중만 | 황 기성 |      | (25명) |

<여>

|      |      |      |      |      |      |      |      |      |
|------|------|------|------|------|------|------|------|------|
| 강 영채 | 강 인순 | 계 수익 | 김 복미 | 김 봉선 | 김 봉재 | 김 봉필 | 김 승자 | 김 신도 |
| 김 애채 | 김 연일 | 김 학이 | 노 영숙 | 문 봉계 | 박 복녀 | 박 석실 | 박 선자 | 박 순은 |
| 박 온준 | 백 원순 | 안 경신 | 양 정백 | 오 경신 | 오 히명 | 유 앵손 | 윤 순애 | 이 도임 |
| 이 명자 | 이 선옥 | 이 성애 | 이 순렬 | 이 옥순 | 이 학주 | 이 현실 | 이 회연 | 장 봉도 |
| 장 의순 | 장 이영 | 장 인승 | 조 순호 | 정 양순 | 지 계순 | 지 영실 | 최미덕  | 허마리아 |

(45명)

1960년

<남>

|      |      |      |      |      |      |      |      |       |
|------|------|------|------|------|------|------|------|-------|
| 김 근우 | 김 기원 | 김 기정 | 김 남규 | 김 성훈 | 김 익수 | 김 한훈 | 김 형권 | 박 성봉  |
| 박 창수 | 박 창호 | 송 순일 | 송 제홍 | 오 중탁 | 오 진갑 | 위 영환 | 윤 종성 | 이 상순  |
| 이 원규 | 이 태규 | 임 광식 | 임 승국 | 임 현덕 | 홍 중만 | 황 기성 |      | (25명) |

<여>

|      |      |      |      |       |      |      |      |       |
|------|------|------|------|-------|------|------|------|-------|
| 강 영채 | 강 인순 | 계 수익 | 김 경선 | 김 복미  | 김 봉선 | 김 봉재 | 김 봉필 | 김 상권  |
| 김 신도 | 김 애채 | 김 연일 | 김 학이 | 노 영숙  | 문 봉계 | 박 복녀 | 박 석실 | 박 선자  |
| 박 순은 | 박 온준 | 박 회일 | 백 원순 | 서 상연  | 손 연자 | 신 옥희 | 양 정백 | 오 경신  |
| 오 회명 | 유 앵손 | 윤 순애 | 이 도임 | 이 명자  | 이 선옥 | 이 신일 | 이 순렬 | 이 옥순  |
| 이 옥순 | 이 학주 | 이 현실 | 이 회연 | 장 봉도  | 장 의순 | 장 이영 | 장 민승 | 조 순호  |
| 정 양순 | 지 계순 | 지 영실 | 최 미덕 | 허 마리아 |      |      |      | (50명) |

1961년

<남>

|      |      |      |      |      |      |      |      |       |
|------|------|------|------|------|------|------|------|-------|
| 강 명순 | 김 남규 | 김 기정 | 김 기일 | 김 한훈 | 김 형권 | 박 성봉 | 박 창수 | 박 창호  |
| 문 인택 | 송 순일 | 송 제홍 | 신 태호 | 안 전웅 | 오 중탁 | 오 진갑 | 우 의섭 | 유 평양  |
| 윤 종성 | 이 경선 | 이 상순 | 이 원규 | 이 태규 | 임 광식 | 임 승국 | 임 현덕 | 조 현명  |
| 최 석주 | 최 임상 | 황 창룡 |      |      |      |      |      | (30명) |

<여>

|      |      |      |      |      |      |      |      |      |
|------|------|------|------|------|------|------|------|------|
| 강 영채 | 계 수익 | 김 경선 | 김 봉선 | 김 봉재 | 김 봉필 | 김 신도 | 김 애채 | 김 연일 |
| 김 정옥 | 노 영숙 | 문 봉계 | 박 기련 | 박 복녀 | 박 석실 | 박 선자 | 박 순은 | 박 온준 |

|      |      |      |      |      |      |      |      |       |
|------|------|------|------|------|------|------|------|-------|
| 서 상연 | 손 연자 | 신 옥희 | 양 정백 | 오 경신 | 오 회명 | 유 앵손 | 윤 순애 | 윤 순탄  |
| 이 덕순 | 이 명자 | 이 선옥 | 이 순열 | 이 신일 | 이 옥녀 | 이 옥순 | 이 옥순 | 이 체룡  |
| 이 재옥 | 이 정순 | 이 학주 | 이 현실 | 이 회연 | 임 현복 | 장 의순 | 장 이영 | 장 인승  |
| 전 정숙 | 정 봉조 | 정 양순 | 정 홍선 | 조 순호 | 조 월진 | 지 영실 | 최 미덕 | 함 송현  |
| 허마리아 | 홍 순복 |      |      |      |      |      |      | (56명) |

1962년

<남>

|      |      |      |      |      |      |      |      |       |
|------|------|------|------|------|------|------|------|-------|
| 강 명순 | 김 경철 | 김 기일 | 김 기정 | 김 남규 | 김 성훈 | 김 창배 | 김 한훈 | 김 형권  |
| 문 인택 | 박 창수 | 송 순일 | 신 태호 | 안 소겸 | 오 석부 | 오 증락 | 우 이집 | 유 병양  |
| 윤 영탁 | 윤 증성 | 이 정선 | 이 상순 | 이 원규 | 이 태규 | 임 광식 | 임 승국 | 임 현덕  |
| 조 석주 | 조 현명 | 최 석주 | 최 임상 | 황 창룡 |      |      |      | (32명) |

<여>

|      |      |      |      |      |      |      |      |       |
|------|------|------|------|------|------|------|------|-------|
| 강 영채 | 고 신옥 | 곽 효일 | 김 경선 | 김 봉선 | 김 봉재 | 김 봉필 | 김 선복 | 김 신도  |
| 김 애채 | 김 연인 | 김 영남 | 김 윤실 | 김 정례 | 김 정옥 | 노 승녀 | 노 영숙 | 문 봉계  |
| 문 정애 | 문 정자 | 민 원옥 | 박 기련 | 박 복녀 | 박 석심 | 박 신자 | 박 은준 | 박 순은  |
| 방 계운 | 백 원순 | 백 의덕 | 서 상연 | 손 연자 | 신 군자 | 신 옥희 | 양 정백 | 오 경신  |
| 오 회명 | 유 앵손 | 윤 순애 | 윤 순탄 | 이 덕순 | 이 명자 | 이 동숙 | 이 순열 | 이 신일  |
| 이 옥녀 | 이 옥순 | 이 옥순 | 이 재룡 | 이 재옥 | 이 학주 | 이 현실 | 이 회연 | 임 현복  |
| 장 의순 | 장 이영 | 전 정숙 | 정 봉조 | 정 양순 | 정 홍선 | 조 순호 | 조 월진 | 함 송현  |
| 허마리아 | 홍 순복 |      |      |      |      |      |      | (65명) |

1963년

<남>

|      |      |      |      |      |      |      |      |       |
|------|------|------|------|------|------|------|------|-------|
| 강 명순 | 곽 은철 | 김 경철 | 김 기일 | 김 기정 | 김 남규 | 김 성훈 | 김 창배 | 김 형권  |
| 문 인택 | 박 창수 | 신 계택 | 신 태호 | 안 소겸 | 안 인성 | 오 증락 | 유 병양 | 윤 중성  |
| 이 정선 | 이 규민 | 이 기정 | 이 상순 | 이 원규 | 이 태규 | 임 광식 | 임 승국 | 임 현덕  |
| 정 병환 | 최 석주 | 최 범석 | 최 임상 | 황 창룡 |      |      |      | (32명) |

<여>

|      |      |      |      |      |      |      |      |       |
|------|------|------|------|------|------|------|------|-------|
| 강 성충 | 강 영채 | 고 신옥 | 곽 의숙 | 곽 효일 | 김 경선 | 김 봉선 | 김 봉재 | 김 봉필  |
| 김 선복 | 김 애채 | 김 연일 | 김 영남 | 김 명자 | 김 정자 | 김 윤실 | 김 정례 | 김 정옥  |
| 김 정임 | 노 승녀 | 노 박  | 문 봉계 | 문 정애 | 문 정자 | 민 원옥 | 박 기련 | 박 복녀  |
| 박 봉주 | 박 석심 | 박 순자 | 박 은준 | 방 계운 | 방 계운 | 백 원순 | 백 의덕 | 서 상연  |
| 성 귀명 | 손 연자 | 송 보경 | 신 군자 | 신 옥희 | 안 경현 | 양 정백 | 오 경진 | 오 영숙  |
| 오 회명 | 유 앵손 | 윤 순애 | 윤 순탄 | 이 덕순 | 이 명자 | 이 동숙 | 이 미례 | 이 신일  |
| 이 옥녀 | 이 옥순 | 이 재룡 | 이 학주 | 이 현실 | 이 회연 | 장 의순 | 장 인승 | 장 정자  |
| 전 정숙 | 정 봉조 | 정 양순 | 조 순호 | 함 송현 | 허마리아 | 홍 순복 |      | (70명) |

## 역대 구역장·권찰 일람

|       | 구역명 | 구역장  | 권     | 찰         |
|-------|-----|------|-------|-----------|
| 1955년 | 신당동 | 최 재성 | 이 생춘  | 김 봉필      |
|       | 장충동 | 강 지순 | 장 인송  | 박 도애      |
|       | 쌍림동 | 박 창호 | 김 순옥  | 지 영실      |
|       | 충무로 | 김 호손 | 지 개순  | 최 미덕      |
|       | 필 동 | 이 원규 | 김 봉선  | 윤 수현      |
|       | 화 원 | 김 한홍 | 구 경숙  | 오 정신      |
|       | 희현동 | 김 광철 | 이 학주  | 문 봉계      |
|       | 을지로 | 한 명옥 | 최 상운  | 안 정신      |
|       | 종 로 | 송 일면 | 허 마리아 | 김 성실      |
|       | 효자동 | 이 성애 | 김 복미  | 계 수익      |
|       | 서대문 | 최 원명 | 장 티영  | 계 봉숙      |
|       | 마 포 | 홍 수정 | 염 성태  |           |
|       | 후암동 | 이 순렬 | 최 덕순  |           |
|       | 원효로 | 이 선옥 | 이 연숙  | 장 봉도      |
|       | 청과동 | 박 순은 | 이 정옥  |           |
|       | 돈암동 | 조 준  | 박 복녀  | 전 영옥      |
| 1956년 | 신당동 | 우 성원 | 이 생춘  | 김 봉필      |
|       | 장충동 | 강 지순 | 장 인송  | 김 송자 박 도애 |
|       | 쌍림동 | 황 기성 | 문 봉계  |           |
|       | 충무로 | 김 상철 | 구 경숙  | 정 양순      |
|       | 필 동 | 이 성순 | 윤 수현  | 김 봉선      |
|       | 화 원 | 김 한홍 | 장 봉도  | 오 회명      |
|       | 희현동 | 김 광철 | 이 학주  | 김 춘신 김 배복 |
|       | 을지로 | 한 명옥 | 최 상운  | 성 귀명      |
|       | 종 로 | 박 창호 | 김 성실  | 장 금주      |
|       | 동대문 | 박 창근 | 백 원순  | 김 봉계      |
|       | 서대문 | 김 천준 | 최 경한  | 장 티영 이 성애 |
|       | 마 포 | 홍 수정 | 염 성태  |           |

|       | 구역명 | 구역장  | 권    | 할         |
|-------|-----|------|------|-----------|
| 1956년 | 후암동 | 최 덕순 |      |           |
|       | 원효로 | 이 선옥 |      |           |
|       | 청파동 | 박 순은 |      |           |
|       | 돈암동 | 박 복녀 |      |           |
| 1957년 | 충무로 | 김 상철 | 구 경숙 |           |
|       | 목정동 | 김 재창 | 이 몽숙 | 강 영채      |
|       | 장충동 | 송 일면 | 박 도애 | 김 효영      |
|       | 쌍림동 | 황 기성 | 장 봉도 | 문 봉계 김 상권 |
|       | 필 동 | 이 상순 | 윤 수현 | 김 봉선 김 신도 |
|       | 화 원 | 김 한흠 | 오 회명 | 김 애채      |
|       | 신당동 | 허 위  | 김 봉필 | 이 생춘      |
|       | 을지로 | 한 명옥 | 이 창순 | 손 연자      |
|       | 종 로 | 김 성실 | 강 이분 |           |
|       | 회현동 | 김 광철 | 이 학주 | 김 대복      |
|       | 동대문 | 박 창호 | 백 원순 | 김 봉재      |
|       | 혜화동 | 계 수익 | 박 온준 |           |
|       | 청파동 | 박 순은 | 이 정옥 |           |
|       | 후암동 | 최 덕순 |      |           |
|       | 청담리 | 성 장수 | 김 정희 |           |
|       | 서대문 | 최 경환 | 장 리영 | 이 순열      |
|       | 돈암동 | 박 복녀 | 이 성무 |           |
|       | 효자동 | 이 성애 | 이 명자 |           |
| 1958년 | 신당동 | 허 위  | 조 순호 | 전 경숙 이 생춘 |
|       | 장충동 | 조 현명 | 박 도애 | 서 상연      |
|       | 쌍림동 | 황 기성 | 지 영실 | 김 상권 박 찬화 |
|       | 목정동 | 김 익수 | 김 영희 | 신 옥희      |
|       | 충무로 | 송 일면 | 장 봉도 | 김 애채      |
|       | 필 동 | 이 상순 | 김 신도 | 김 봉선      |
|       | 화 원 | 김 한흠 | 최 미덕 | 오 경선      |
|       | 인현동 | 김 기원 | 김 효영 | 오 회명      |
|       | 회현동 | 김 광철 | 김 대복 | 이 학주      |
|       | 청파동 | 박 창수 | 박 순은 | 이 정옥      |
|       | 서대문 | 최 경환 | 이 순열 | 김 연일 김 영준 |

|       | 구역명 | 구역장  | 권    | 할    |           |
|-------|-----|------|------|------|-----------|
| 1958년 | 효자동 | 최 경한 | 이 성애 |      |           |
|       | 을지로 | 이 규민 | 이 창순 | 손 연자 |           |
|       | 종 로 | 김 성실 | 안 경신 | 박 진옥 |           |
|       | 동대문 | 박 창호 | 백 원순 | 김 봉재 | 김 상범      |
|       | 돈암동 | 김 수남 | 박 복녀 | 이 성무 |           |
| 1959년 | 신당동 | 김 선운 | 조 순호 | 박 선자 | 강 인순 김 화실 |
|       | 장충동 | 조 현명 | 서 상연 | 박 도애 | 곽 복녀 양 경백 |
|       | 쌍림동 | 우 성원 | 지 영실 | 홍 순복 | 박 찬화      |
|       | 화 원 | 김 한흠 | 오 경신 | 유 앵손 | 김 정례      |
|       | 인현동 | 김 기원 | 오 히명 | 김 효영 | 곽 의숙      |
|       | 묵정동 | 윤 종성 | 신 옥희 | 이 몽숙 | 박 순복      |
|       | 필 동 | 이 상순 | 김 신도 | 김 봉선 | 윤 순탄      |
|       | 회현동 | 김 광철 | 김 대복 | 이 학주 |           |
|       | 후암동 | 박 창수 | 이 재룡 | 이 정옥 | 김 영일      |
|       | 을지로 | 김 근우 | 이 창순 | 손 연자 |           |
|       | 서대문 | 최 경한 | 김 연일 |      |           |
|       | 효자동 | 이 성애 | 이 명자 |      |           |
|       | 충무로 | 강 지순 | 김 애채 | 장 봉도 |           |
|       | 혜화동 | 김 남규 | 박 온준 | 계 수익 | 박 진옥      |
|       | 돈암동 | 김 수남 | 박 복녀 | 김 봉필 |           |
|       | 종 로 | 김 성실 | 성 귀명 |      |           |
|       | 동대문 | 박 창호 | 김 봉재 | 박 석실 |           |
|       | 홍 능 | 윤 수현 | 김 송자 |      |           |
| 1960년 | 신당동 | 이 태규 | 조 순호 | 박 선자 | 유 앵손 김 화실 |
|       | 왕십리 | 황 기성 | 김 상권 | 계 수익 |           |
|       | 장충동 | 위 영환 | 서 상연 | 장 인출 | 양 정백      |
|       | 쌍림동 | 우 성원 | 지 영실 | 홍 순복 | 박 찬화      |
|       | 충무로 | 박 창호 | 김 학이 | 김 애채 |           |
|       | 중 부 | 오 중락 | 이 회연 | 장 봉도 |           |
|       | 묵정동 | 윤 종성 | 신 옥희 | 박 순복 | 김 영희      |
|       | 필 동 | 이 상순 | 김 신도 | 김 봉선 |           |
|       | 화 원 | 김 한흠 | 유 앵손 | 오 경신 | 김 정례      |
|       | 인현동 | 김 기원 | 오 히명 | 곽 의숙 | 경 봉조      |

1960년

구역명

구역장

권

찰

을지로

김 근우

손 연자

이 창순 이 심일

회현동

김 광철

이 학주

김 춘선

후암동

박 창수

김 애채

서대문

송 순일

지 계순

효자동

이 성애

이 명자

홍 능

윤 수현

남 숙덕

동대문

유 병양

김 봉채

박 석심 지 중봉

종 로

김 남규

이 신일

돈암동

송 제홍

박 복녀

김 봉필 광 복녀

1961년

금호동

허 승열

조 순호

이 재옥

왕십리

오 진갑

계 수익

김 상권

신당동

이 태규

박 선자

전 정숙 민 원옥

장충동

조 현명

서 상연

박 석순 이 경옥

쌍림동

안 진웅

홍 순복

강 성춘 지 영실

충 무

이 원근

김 학이

김 봉선 김 선복

필 동

이 상순

김 신도

백 의덕 윤 순탄

묵정동

이 원규

이 몽식

신 군자 장 정자

증 부

오 중락

이 회연

이 세화 장 봉도

인현동

김 기원

곽 의숙

정 봉조 김 정임

화 원

김 한흠

김 정예

곽 효일

동대문

유 병양

김 봉채

지 중봉 박 석심

청량리

윤 수현

이 순열

혜화동

김 성실

이 신일

돈암동

송 재홍

박 복녀

송 보경 이 미래

을지로

홍 수정

이 창순

이 심일

서대문

송 순일

이 성애

이 명자 이 창옥

회현동

임 광식

이 학주

김 대복

후암동

김 애채

최 미덕

청파동

박 창수

이 재룡

1962년

금호동

조 순호

이 몽숙

김 상권

왕십리

황 기성

박 선자

민 원옥

신당동

이 태규

서 상연

박 석순

장충동

조 현명

1962년

| 구역명  | 구역장  | 권    | 할    |       |
|------|------|------|------|-------|
| 쌍림동  | 최 석준 | 홍 순복 | 강 성춘 | 박 찬화  |
| 중 부  | 오 중락 | 이 회연 | 이 덕순 |       |
| 충무로  | 황 창룡 | 김 학이 | 김 선복 | 김 봉선  |
| 목정동  | 윤 종성 | 신 군자 | 장 정자 | 김 영남  |
| 필 동  | 이 상순 | 김 신도 | 백 의덕 | 윤 순탄  |
| 인현동  | 김 기원 | 곽 의숙 | 정 봉조 | 김 경임  |
| 화 원  | 김 한홍 | 김 정예 | 곽 효일 |       |
| 해화동  | 조 석주 | 이 신일 | 안 경신 |       |
| 돈암동  | 한 명옥 | 박 복녀 | 송 보경 | 이 미래  |
| 율지로  | 윤 영탁 | 이 창순 | 손 연자 | 오 영숙  |
| 회현동  | 임 광식 | 이 학주 | 김 춘선 | 방 제운  |
| 서대문  | 송 순일 | 김 연일 | 이 옥녀 |       |
| 후암동  | 박 창수 | 최 미덕 |      |       |
| 청과동  | 박 창수 | 이 재룡 | 김 애채 | 오 경신  |
| 효자동  | 이 성애 | 이 명자 |      | 박 기련  |
| 동대문  | 유 병양 | 김 봉재 | 박 석심 | 오 회명  |
| 청량리  | 윤 수현 | 이 순열 |      |       |
| 금호동  | 조 순호 |      |      |       |
| 왕십리  | 김 경철 | 김 상권 | 이 몽숙 |       |
| 약수동  | 김 한홍 | 유 앵손 | 문 봉계 | 함 송현  |
| 신당동  | 이 태규 | 민 원옥 | 박 선자 | 지 소저  |
| 장충 1 | 최 범석 | 이 경옥 | 서 상연 |       |
| 장충 2 | 신 재택 | 임 풍숙 | 박 영덕 |       |
| 광희동  | 신 태호 | 지 대숙 | 양 경백 |       |
| 충무로  | 오 중락 | 김 선복 | 최 순자 | 김 초연  |
| 쌍림동  | 안 인성 | 강 성춘 | 홍 순복 | 허 마리아 |
| 중 부  | 곽 윤철 | 이 회연 | 이 덕순 | 남 정우  |
| 율지로  | 최 석주 | 손 연자 | 오 영숙 | 이 창순  |
| 목정동  | 윤 종성 | 문 정자 | 신 군자 | 장 정자  |
| 필 동  | 문 익택 | 백 의덕 | 윤 순탄 | 김 영남  |
| 인현동  | 김 성훈 | 김 정임 | 정 봉조 | 곽 의숙  |
| 화 원  | 이 삼순 | 곽 효일 | 김 명자 | 김 정래  |
| 해화동  | 김 기정 | 박 윤준 | 이 신일 |       |

1963년

|       | 구역명 | 구역장  | 권    | 활         |
|-------|-----|------|------|-----------|
| 1963년 | 돈암동 | 김 창배 | 김 봉필 | 박 복녀      |
|       | 미아리 | 이 규민 | 김 운실 | 송 보경 이 미례 |
|       | 서대문 | 송 순일 | 김 연일 | 안 숙자      |
|       | 회현동 | 임 광식 | 김 춘선 | 방 계운      |
|       | 용 산 | 박 창수 | 박 기련 | 오 히명 오 경신 |
|       | 효자동 | 이 성애 | 이 명자 |           |
|       | 동대문 | 유 병양 | 김 봉재 | 지 중봉      |
|       | 창신동 | 양 재돈 | 김 덕민 | 노 승녀      |
|       | 청량리 | 이 기정 | 남 숙덕 |           |

## 역대 주일학교 교사 일람

### ㄱ. 장년 주일학교

#### 1956년도

|          |          |          |                                     |
|----------|----------|----------|-------------------------------------|
| 교 장 김 창인 | 부 장 황 해성 | 부 감 홍 수정 | 서 기 장 리영                            |
| 부서기 송 일면 |          |          |                                     |
| 〈남 반사〉   |          |          |                                     |
| 김 천준     | 우 성원     | 최 재성     | 한 명옥 황 기성 (5명)                      |
| 〈여 반사〉   |          |          |                                     |
| 구 경숙     | 김 봉선     | 김 송자     | 윤 수현 이 명자 이 성애 이 현실 장 인송 최 경한 (10명) |
| 한 명덕     |          |          |                                     |

#### 1957년도

|          |          |          |                                     |
|----------|----------|----------|-------------------------------------|
| 교 장 김 창인 | 부 장 홍 수정 | 부 감 최 재성 | 서 기 장 리영                            |
| 〈남 반사〉   |          |          |                                     |
| 김 기원     | 김 천준     | 성 장수     | 이 상순 이 원규 한 명옥 (6명)                 |
| 〈여 반사〉   |          |          |                                     |
| 구 경숙     | 김 대복     | 김 송자     | 오 히명 윤 수현 이 성애 이 학주 장 인송 최 경한 (10명) |
| 한 명덕     |          |          |                                     |

#### 1958년도

|          |          |          |          |
|----------|----------|----------|----------|
| 교 장 김 창인 | 부 장 홍 수정 | 부 감 한 명옥 | 서 기 김 광철 |
| 부서기 장 리영 |          |          |          |

〈남 반사〉

김 기원 김 천준 우 성원 (3명)

〈여 반사〉

구 경숙 김 대복 김 송자 김 애채 문 봉계 이 성애 최 경한 한 명덕 (8명)

1959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홍 수정 부 감 한 명옥 서 기 김 광철  
부서기 장 리영

〈남 반사〉

김 기원 김 기정 최 재성 (3명)

〈여 반사〉

구 경숙 김 대복 김 송자 김 신도 김 애채 오 경신 이 성애 (7명)

1960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한 명옥 부 감 김 기원 서 기 김 기정

〈남 반사〉

김 천준 오 중락 위 영환 (3명)

〈여 반사〉

강 인순 김 봉선 문 봉계 유 앵손 이 성애 최 경한 (6명)

1961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한 명옥 부 감 김 기원 서 기 김 기정

〈남 반사〉

오 중락 위 영환 유 병양 (3명)

〈여 반사〉

구 경숙 김 봉선 김 신도 김 애채 오 경신 유 앵손 (6명)

1962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한 명옥 부 감 김 기정 서 기 조 현명

〈남 반사〉

오 중락 유 병양 (2명)

〈여 반사〉

구 경숙 김 신도 김 애채 임 현복 정 양순 (5명)

1963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한 명옥 부 감 송 순일 서 기 김 창배

〈남 반사〉

오 중락 유 병양 임 광식 (3명)

〈여 반사〉

곽 효일 구 경숙 김 신도 유 앵손 임 현복 정 양순 (6명)

#### ㄴ. 중·고등 주일학교

1962년도 <지 도 조 천 일>

교 장 김 창인 부 장 위 영환 차 장 조 현명

<반사>

우 기전 윤 열탁 이 중운 (3명)

1963년도

[고등부] <지 도 조 천 일>

교 장 김 창인 부 장 위 영환 차 장 김 기정

서 기 홍 순복

<반사>

김 성주 신 예철 정 세숙 한 영석 (4명)

[중등부]

교 장 김 창인 부 장 조 현명 차 장 이 중운

<반사>

김 성훈 우 기전 홍 순복 백 수자 (4명)

#### ㄷ. 유년 주일학교

1953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최 재성 부 감 홍 수정

1954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최 재성 부 감 홍 수정

<남 반사>

김 광철 김 한홍 김 성주 안 종옥 원 경식 임 봉수 (6명)

<여 반사>

장 신채 유 은희 (2명)

1955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박 창근 부 감 홍 수정 서 기 김 재창

회 계 홍 수정 총 무 김 상철

<남 반사>

고 성택 김 광철 김 종현 김 천홍 김 패로 김 한홍 김 호손 박 동원 박 수은

박 승준 박 창수 박 창호 안 종옥 우 성원 원 경식 이 홍재 조 성래 주 상철 (18명)

<여 반사>

곽 옥희 김 순옥 김 은주 김 정숙 박 상희 송 가열 송 영자 송 오엽 오 은경

유 은희 이 계숙 지 연화 차 경숙 최 명숙 최 영숙 허 동숙 허 옥란 (17명)

# 1956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박 창근 부 감 김 상철 서 기 김 재창  
부서기 안 종옥 김 계숙 회 계 김 한울 부회계 유 은희

## <남 반사>

강 태섭 권 석희 김 계웅 김 광철 김 동수 김 성주 김 창호 박 리화 박 창수  
박 창호 오 진국 윤 영탁 임 성환 전 남형 조 성래 조 영춘 정 요섭 한명철  
한 정현 (19명)

## <여 반사>

강 신채 박 옥희 김 봉재 김 상순 김 은주 김 홍순 김 현수 박 상희 백 영숙  
송 영자 오 은경 오 춘옥 정 숙희 (13명)

# 1957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박 창근 부 감 김 상철 서 기 김 재창  
부서기 박 리화 회 계 김 한울 부회계 황 순진

## <남 반사>

강 태섭 김 광철 김 계웅 김 동수 김 선현 김 성주 김 용근 김 익수 박 창호  
박 창수 우 성원 우 원국 윤 영탁 이 규민 이 용희 조 영춘 조 성래 (17명)

## <여 반사>

강 신채 김 광경 김 상범 김 영숙 김 정옥 김 옥 문 봉실 박 경숙 박 신연  
선우춘영 오 은경 유 은희 장 의옥 장 정균 최 양례 한 근화 허 옥란 (17명)

# 1958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김 상철 부 감 김 한울 서 기 박 승준  
부서기 조 성래 회 계 문 봉실 부회계 조 현명

## <남 반사>

강 해민 김 근우 김 성주 김 선현 김 용근 김 종현 박 창호 윤 종성 이 규민  
조 영춘 최 재성 최 선수 홍 종만 (13명)

## <여 반사>

강 신채 김 경애 김 경인 김 금옥 김 난숙 김 영숙 김 영은 김 옥 김 정애  
문 회숙 서 은희 신 민자 신 옥희 오 은경 유 지숙 윤 명순 장 이옥 장 정균  
최 경학 최 영자 (20명)

# 1959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박 창근 부 감 김 한울 서 기 홍 종만  
부서기 조 성래 부서기 임 설문 회 계 조 현명

〈남 반사〉

김 근우 김 광은 김 성주 김 용근 김 창배 박 창호 신 성종 윤 종성 이 종운  
조 영춘 주 성현 최 석주 최 선수 (13명)

〈여 반사〉

강 신체 김 광정 김 난숙 김 금옥 김 명숙 김 은실 김 애채 김 영은 문 봉실  
문 회숙 박 선자 신 민자 신 옥희 선우춘영 오 은경 우 영자 유 은희 윤 명순  
이 경숙 장 정균 장 의옥 전 금순 정 순애 정 순희 정 영희 정 홍선 조영희 (27명)

1960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최 재성 부 감 김 한홍  
지 도 홍 종만 서 기 조 성태 부서기 정 은숙 회 계 김 한홍

〈남 반사〉

김 성주 박 영배 박 우길 박 창호 신 성종 안 종옥 오 석부 이 종운 이 태규  
정 종선 주 수일 차 용신 최 석주 한 경일 홍 경의 홍 정일 (16명)

〈여 반사〉

강 신체 김 명숙 김 영숙 김 옥 김 정옥 박 순금 신 경자 신 민자 신 옥희  
우 영자 유 은순 유 은희 윤 명순 이 복순 이 선애 장 정균 장 의옥 정 순애  
정 영희 조 영희 한 복 홍 순복 (22명)

1961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김 광철 부 감 김 한홍  
지 도 조 천일 총 무 최 석주 서 기 조 성태 회 계 홍 정일

〈남 반사〉

김 경세 김 경철 김 광신 김 상정 노 광현 박 영배 박 용삼 박 회민 손 신일  
심 상선 오 석부 이 태규 임 현덕 정 성도 지 춘길 허 준수 (16명)

〈여 반사〉

강 신자 김 경자 김 난숙 김 영숙 김 은자 박 기련 신 옥희 윤 명순 이 선애  
장 해순 정 은숙 정 초자 정 홍선 조 영희 지 순자 한 복 홍 정자 (17명)

1962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김 광철 부 감 김 한홍  
지 도 조 천일 총 무 최 석주 서 기 이 태규 회 계 김 한홍

〈남 반사〉

김 경세 김 경철 김 광신 김 상정 김 성주 김 기은 김 성관 노 광현 박 영배  
박 용삼 박 상율 박 동우 손 신일 심 상선 오 석부 홍 정일 임 현덕 전 복규  
정 관일 조 성태 조 정효 진 판경 허 준수 (23명)

〈여 반사〉

김 경자 김 난숙 김 순자 김 인 김 영숙 김 연숙 김 은자 김 영실 김 선

박 기련 신 옥희 윤 명순 이 선애 이 복순 이 선옥 이 신자 송 철연 장 혜순  
 정 신자 정 초자 조 영희 지 순자 한 복 (23명)

1963년도

교 장 김 창인 부 장 김 광철 부 감 김 한흠 박 기련  
 지 도 임 승원 총 무 최 석주 서 기 이 태규 회 계 박 기련

<남 반사>

곽 은철 김 경세 김 경철 김 광신 김 광철 김 상정 김 성주 김 정임 김 한흠  
 노 광현 박 용삼 박 창수 방 윤택 손 동운 신 영대 신 태호 심 상선 안 인성  
 양 재돈 양 홍석 우 성원 윤 만철 이 병학 이 타관 이 태규 임 승원 임 현덕  
 전 복규 정 성도 조 대영 조 선근 조 성래 주 수일 진 복영 최 석주 최 성립  
 한 경일 한 정수 (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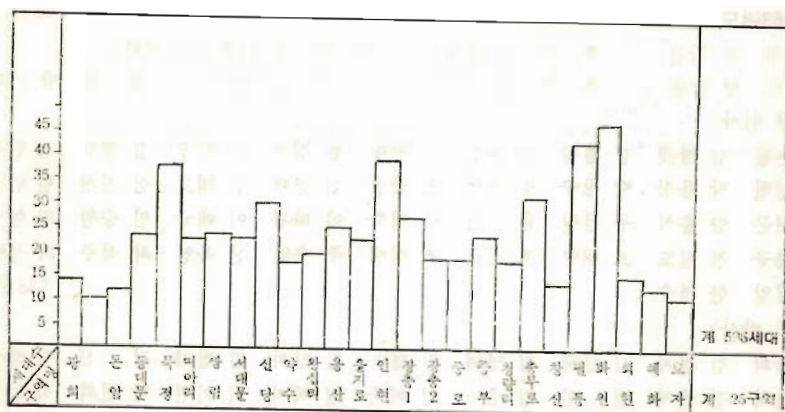
<여 반사>

강 창희 김 경자 김 난숙 김 명녀 김 명옥 김 민자 김 번자 김 신 김 영실  
 김 영화 김 은자 김 인 김 종미 김 혜숙 김 혜자 박 기련 박 신희 박 양임  
 변 신자 성 귀명 송 경자 송 철연 송 철완 신 경자 신 옥희 양 영희 여 금자  
 우 영자 위 향숙 윤 명순 이 남숙 이 선애 이 숙자 이 영숙 이 혜숙 임 태주  
 장 순균 장 순녀 장 혜순 정 초자 주 광자 주 일신 최 규 최 정자 최 춘자  
 한 복 한 순희 황 성향 (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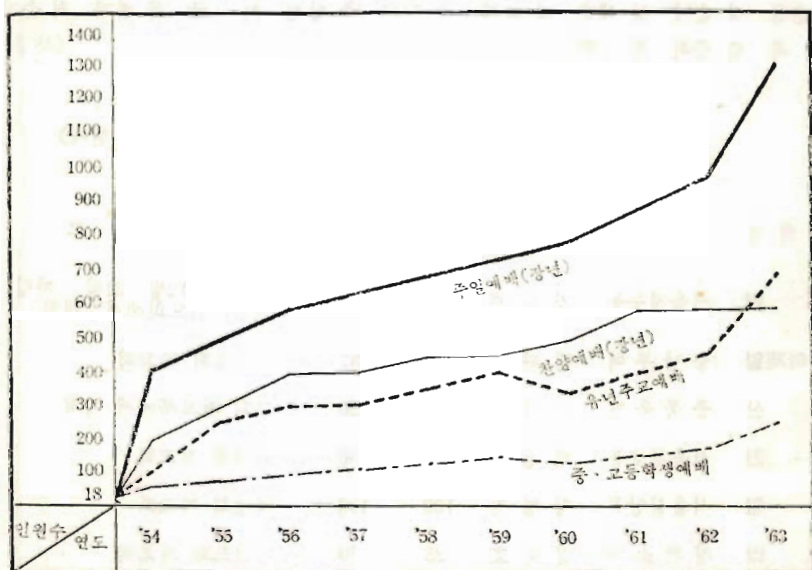
지 교 회 일 랍 (1963년 6월30일 현재)

| 교 회 명 | 소 재 지  | 교 역 자 | 장<br>집회수 | 유<br>년<br>집회수 | 비 고                              |
|-------|--------|-------|----------|---------------|----------------------------------|
| 동 암   | 서울정능동  | 장 여 재 |          |               | 1962년 12월 31일 자립<br>(남 전도회에서 개척) |
| 부여제일  | 충 남 부여 | 김 관 형 | 43       | 57            | 여전도회 지교회                         |
| 세 산   | 충 북 옥천 | 김 서 룡 | 24       | 20            | 교회 전도부에서 개척                      |
| 성 인   | 서울천호동  | 백 성 룡 | 65       | 80            | 학생회 지교회                          |
| 삼 양   | 서울삼양동  | 함 영 진 | 100      | 190           | 청년회 지교회                          |
| 상 리   | 경 기 소사 | 김 덕 호 | 25       | 60            | 남전도회 지교회                         |
| 연 암   | 서울연희동  | 홍 경 수 | 40       | 100           | 여전도회 지교회                         |

## 교 세 일 람



교인 분포도 (1963년 9월 현재)



교인 증가율 (매년 12월 통계)

## 연 혁

- 1953년 9월 6일 : 첫 예배(시내 인현동 한명덕 집사택에서).  
 1953년 9월 12일 : 김창인 전도사 취임.  
 1953년 10월 11일 : 시내 울지로 2가르 이전(이창옥 권사택).  
 1953년 10월 26일 : 시내 충무로 5가 36번지로 이전.  
 1953년 11월 1일 : 유년주일학교 개교.  
 1953년 11월 24일 : 기독교생면려회 조직.  
 1953년 11월 29일 : 임시 건물(철막) 건립.  
 1953년 12월 12일 : 본관 건축 착공.  
 1953년 12월 16일 : 1954년도 초대 제직회 조직.  
 1953년 12월 22일 : 강진선 목사 초대 당회장 취임(겸임).  
 1954년 1월 17일 : 여전도회 조직.  
 1954년 1월 24일 : 고흥봉 목사 2대 당회장 취임(겸임).  
 1954년 4월 1일 : 성가대 조직.  
 1954년 5월 9일 : 강지순·최재성 장로 취임, 우성원 장로 장립.  
 1954년 10월 10일 : 노윤석 전도사 취임.  
 1954년 11월 24일 : 장석인 목사 3대 당회장 취임(겸임).  
 1955년 8월 8일 : 강진선 목사 4대 당회장 취임(겸임).  
 1955년 9월 4일 :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  
 1955년 9월 18일 : 노윤석 전도사 사임.  
 1955년 10월 9일 : 홍신균 전도사 취임.  
 1955년 11월 6일 : 첫 감사절 예배(신축 예배당에서).  
 1955년 12월 17일 : 본관 준공 예배.  
 1955년 12월 24일 : 황해성·박창근 장로 취임.  
 1956년 1월 15일 : 청년면려회 조직.  
 1956년 1월 21일 : 김지화 전도사 취임.  
 1956년 4월 8일 : 최 훈 전도사 취임(김지화 전도사 사임).  
 1956년 4월 30일 : 홍신균 전도사 사임.  
 1956년 6월 9일 : 홍수정 장로 장립.

- 1956년 7월 18일 : 문춘운 전도사 취임.
- 1956년 8월 12일 : 동일교회를 충현교회로 개칭.
- 1956년 8월 16일 : 전칠홍 목사 5대 당회장 취임(결임).
- 1956년 12월 18일 : 김천준 장로 장립.
- 1957년 1월 2일 : 남 전도회 조직.
- 1957년 9월 7일 : 김창인 목사 6대 당회장 취임(전임).
- 1958년 9월 30일 : 본관 신축 낙성 및 김창인 목사 위임식.
- 1959년 10월 9일 : 김광철·한명옥 장로 장립.
- 1960년 4월 7일 : 황기성 장로 장립.
- 1960년 5월 1일 : 문춘운 목사 사임.
- 1960년 10월 16일 : 고정수 강도사 취임.
- 1960년 10월 23일 : 최 훈 강도사 사임.
- 1961년 1월 6일 : 조천일 목사 취임.
- 1961년 3월 7일 : 별관 건축 착공.
- 1961년 4월 9일 : 허준 장로 취임. 김기원·위영환 장로 장립.
- 1961년 9월 18일 : 별관 준공.
- 1962년 5월 22일 : 변소 착공.
- 1962년 7월 30일 : 변소 준공.
- 1963년 1월 5일 : 중학생 면려회 조직.
- 1963년 4월 5일 : 이득진 장로 취임. 조현명·김한울·송순일 장로 장립.
- 1963년 7월 30일 : 사택 구입(교회 대치를 위한).
- 1963년 9월 19일 : 설립 10주년 기념.

##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

(계 3 : 7~13)

김 창 인 목사

오늘 1963년 9월 19일 우리 충현교회 설립 10 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불드사 1948년 12월 3일 북한에서 부터 서울까지 월남케 하신 후 한달 지나 1949년 1월 3일 서울 장충동 2가에 있는 백 선생댁 한 모퉁이를 세(貰)로 얻게 하시어 그곳에서 예배케 하신 것이 바로 처음 장충교회의 출발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거기서 얼마 동안 모이는 중 셋집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 집을 하나 준비하자고 해서 피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장충동 1가 78번지 8호에 72 평의 집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 100여 명의 교인이 기쁨으로 1년 동안 모여서 예배하던 중 원치 않는 6·25 동란이 터졌고 또한 1·4 후퇴의 비극이 벌어져 할수 없이 하나님의 양떼들은 대가로 부산으로 밀려가게 되었으며 부족한 이 중도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만나 교회 재건을 의논하던 중 이미 세워진 지방교회를 담임하여 같이 모일 것을 합의하여 부산 대신동 서부교회를

담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곳에서도 날로 더하여 그 후 반 년이 못되어 100 명이 200 명으로, 200 명이 300 명으로, 300 명이 400 명으로 증가케 되니 비좁은 예배당 건물이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문제로 서울서 같이 간 교인들과 피난민 성도들 그리고 그 지방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따로 교회 설립을 추진케 되어 부산 동대신동 1가 78번지에 대지 99 평을 구입하고 지금의 부산 동일교회인 72 평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 그곳도 하나님의 은혜로 300 명, 400 명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다시 서울이 수복되어 피난 성도들의 일부가 서울로 상경케 되어 지금 우리 김천준 장로님을 선발대로 보내면서 이미 장충교회 때 시무하였던 이창옥 권사님과 의논하여 서울 장충교회 건물을 매도하고 지금 이곳, 당시에는 서울의 장충각이라는 유명한 요릿집이었던 대지 310 평을 구입하여 교회 대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한편 상경한 교인들은 지금 한명덕 권사님의 사가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때 모인 교인이 18 명이요 바로 그 날이 1953년 9월 첫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족의 부흥을 주셔서 오늘에는 전평 580 여평과 대지 470 여평을 가지게 되었고 유년은 700 명, 중·고등학생은 250 여명, 장년은 1,400 여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으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과거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꿈에라도 교만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영광만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와 회개로 한 걸음 두 걸음 질적으로 믿음을 더하여 다 같이 하늘 나라 합격자가 되어야 하겠고 양적(量的)으로 10 배, 100 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가기를 충심으로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을 제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 1.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첫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씀은 첫째로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고 “거룩하다”는 말씀은 둘째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사 거룩하신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제사장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제사장 예수님 ! 죄인들을 능히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예수님 ! 이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참 제사장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과거 천만 가지의 죄를 자기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사 장차 거룩한 하늘나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진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교훈이라든지 진실하시어 도무지 틀림이 없으신 예수님으로 이 말씀은 선지자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바 이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스승의 말은 열흘 가다 변하고 1 년 가다 변하고 3 년 가다 또 만 학설이 나오는 법이나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은 진실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니 천지는 없어지고 변할지언정 이 말씀은 일점 일획이라도 변치 않습니다. 이 참 선지자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또한 우리 교인은 사람의 학설을 따라 가다 미치광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력 따라 가다가 간사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신 대선생 예수님만의 책망과 권면과 위로와 지도를 받게 하여 주세요.

세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달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달을 자가 없다」는 말씀의 뜻은 왕의 권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만유의 대왕 늘 경배하고 그 크신 사랑 늘 찬미하자”(찬송)

악마를 밟고 이기신 만유(萬有)의 대왕! 지옥의 권세를 밟으신 승리의 대왕!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소서.

즉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제사장이 되시어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의 이름으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 나라 합격자로 기록하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제단에 나온 자마다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 거짓 없는 사랑과 거짓 없는 성도로 남의 이움을 당치 않는 지혜로운 자 만들어 주소서. 이 제단에 나온 자마다 물은 비록 땅을 밟고 코는 비록 죽음의 재를 담은 공기를 호흡해도 하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에서 그 누가 손댈 자 없게 하시사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 2.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 원합니다

「불찌여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달을 자가 없느니라」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열린 문의 복을 받았읍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길 가는 나그네니”(찬송)

참으로 길 가는 나그네가 인생인가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에게 절벽과 막힌 길 또는 물결치는 파도가 가로 막힌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첫째로, 개인에게 문을 열어 주세요

- (1) 하나님과 연락(連絡)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 (2)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세요.
- (3) 하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미하는 참된 입술을 열어 주세요.
- (4) 육적 사업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성공의 길을 열어 주세요.  
주여 ! 이 계단에 나오는 개인 개인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둘째로, 교회적으로 문을 열어 주소서

(1)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사 생명양식인 생명수(生命水)를 무진장으로 쏟아 주세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양식으로 풍성케 채워 주세요.

(2)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간에 들어가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 입고서 천성문 들어가는 문을 열어 주세요. 오늘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그 날에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 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세요.

(3)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 주세요.

오늘 까지 10 년 간 장족의 부흥을 주셨지만은 이보다 더 좋은 문을 열어 주세요. 더 넓은 문을 열어 주세요. 더 깨끗한 문을 열어 주세요. 그래서 협소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크게 지어 마음대로 교인을 수용할 수 있는 부흥의 문을 열어 주세요. 처음에 18 명이 모여 첫 예배 드린 후 십년 동안에 장년 1,400 명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20 주년 맞이할 때는 3,000명, 5,000 명을 더 주세요. 부흥의 문 !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고 양적으로 넘치는 부흥 ! 그리고 또 선한 사업으로 지교회를 많이 세우고 각 처에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사업의 문도 더 열어 주세요.

### 3.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의 뜻은 정성을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즉 적은 힘, 적은 재산, 적은 지식, 적은 기술, 적은 실력, 인간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성만은 다 바쳤구나” 하시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자의 많은 현금보다 지극히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분의 적은 정성입니다.

“오냐! 네가 모든 사람보다 현금을 가장 많이 하였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같이 정성을 다 바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김복사를 비롯하여 무식쟁이, 쇠약한 병쟁이들이 모였고 경험 없는 어린 것들이 모였으나 교역자로부터 중·고등학교, 유년을 지도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성가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비롯하여 유년부 반사까지 아니! 그보다 더 이름 없는 모든 교인들까지 있는 정성 그대로 다 바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이니 당신께 바칩니다. 적은 것을 적다고 하지 마옵소서. 어린이 점심밥 오병이어(五餅二魚)로 5천 명을 먹이셨으니 이 같은 정성 우리에게도 주소서”

둘째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나니

이것은 진리(眞理)를 지켰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를 지키므로 칭찬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세력의 압력을 받아 머리 숙이지 말

고 인정에 끌려 우물쭈물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까지키는 제단을 만들어 주소서.

세째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습니다. 곧 주의 이름을 환란 중에서도 배반하는 일이 없었던 말입니다.

신하(臣下)된 몸이 왕을 배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신부된 몸이 신랑을 배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도 이제 왕의 왕을 충성으로 섬기며 신부된 몸으로 신랑되신 예수 앞에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치 않고 사랑하는 제단이 되기 원합니다.

색은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내 색을 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아오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으로 고생 당할 때 역을하다, 괴롭다는 짜증이나 불평이 없는 법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 어떤 탄 세력과 물질이 괴일 수가 또한 없는 법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그 무엇을 놓고 주와 바꿀 수 있겠으며 왕의 왕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무엇으로 절개를 팔 수 있겠으며 주 사랑하는 자가 그 무엇을 놓고 그의 나라를 팔 수 있겠읍니까? 오직 나는 모든 사랑하는 것 중에 당신만을 가장 사랑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찌어다”

우리 교회는 비록 인간적으로 세력 있는 자가 별로 없고 인간적으로 큰 부자가 많지 않으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참된 칭찬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4.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권면의 말씀을 다시

들려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네가 이미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권면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십니다. 즉 선한 일 쉬지 말고 계속해 다오! 진리를 지키는 일 끊이지 말고 그대로 지켜 다오! 그리고 내 이름을 과거에 배반치 않은 것처럼 죽는 날까지 배반하지 않는 자 되어 다오!

우리는 과거의 받은 바 은혜로 교만치 말고 또 이것만으로 만족하여 게으르지도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조심하여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읍니다. 받은 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여 꿈에라도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교회에서는 교역자에게 일거리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성을 다 바치는 일, 끊임없는 선한 일, 진리를 지키는 일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이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차취를 더듬어 볼 때 모든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 뿐입니다. 십년 동안 우리를 키우신 하나님은 이 곳에 땅을 준비하셨고 건물을 준비하여 주셨읍니다. 여기의 이 땅을 평당 3만 원 기준한다면 전체 대지 470 평이 넘으니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건평만해도 평당 1만 5천 원치고 총 580 여평의 건물이면 그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 지교회 일곱에 교역자를 파송하였으니 이 모든 일은 성도들의 진정한 정성과 눈물 그리고 땀의 결정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읍니다.

해마다 우리는 수 많은 일들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꿈에라도 원망이나 자랑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좀더 일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성벽이 금과 은으로 지어졌읍니다. 궁궐도 지었읍니다. 금으로 용상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때의 그 백성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왕이 세상 떠난 후 세금을 적게 내고 궁궐과 예배당을 짓지

않으면 더 잘 살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세상 떠난 후의 이스라엘백성은 거지가 되어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정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정성을 바쳤느냐? 내가 창고를 채워 주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면을 바로 받아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날까지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공기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태양 빛을 받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양식을 주시니 나도 끊임없이 주 앞에 바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 5.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신 그 허락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승리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기는 자……」(3:12)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제단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제단에 제심으로 손 댈 자가 없는 제단, 이 제단의 양떼들은 능히 손 댈 자가 없는 승리의 신자! 주여! 이 복을 허락해 주세요.

둘째로, 천국의 일군, 쓸 만한 일군을 만들어 주시마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3:12)

이 얼마나 고마운 허락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요셉은 17세 때 원치 않는 일이었으나 형들에 의해서 팔려 가 애굽사람의 머슴살이를

10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또 원치 않는 감옥살이를 3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준비한 것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특채(特探)하여 30 살 총각의 몸인 요셉에게 「바로」 왕이 무릎을 꿇어 머리 숙이고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군이 되니 애굽의 박사들을 교훈하는 대선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학교 총장이 주는 학사증, 박사증도 다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증이 없으면 그를 들어 쓴 교회도, 나라도 마침내 망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증을 갖기만 하면 인간적으로 경험 없고 무식하지만 그가 가는 곳에, 그를 쓰는 곳에 참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 세째로, 세 가지의 증명서를 주마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명서는 참으로 놀라운 증명서입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너무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1)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 집의 족보에 올린 증명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딸이 된 증명서를 주실 때 원수 마귀가 손 못 댈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또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2) 천국의 시민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민증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곧 천국 시민증이란 말입니다.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기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뿐 아니라 세상을 떠나 하늘 나라에 들어갈 천국시민증을 내게 주시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시민증을 가진 자가 한국에 살 때에 미국의 대사가 와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증을 가진 자마다 몸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전권대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신부될 증명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새 이름을 주마」(3:12)

산골짜기 솟구기 집에 사는 딸이 있습니다. 산림 긴수가 와도 떨고 순경만 와도 벌벌 떠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 왕자와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부터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일국의 장관들이 절을 합니다.

여러 분과 제가 비록 땅 위에서 솟구기 딸만큼 밖에 가치가 없으나 그리스도의 신부될 증명서만 가지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사도 우리들을 수중 들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지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모시고 영원이 거기서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찬미로 삽니다”(찬송)

땅 위에서는 셋집조차 못 얻어도 하늘 나라의 황금보석 꾸민 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집 골목에 떠돌이 날리고 하수도가 넘쳐서 냄새 나지만 그 날에는 황금보석 깔린 길을 다닐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려 주신 이 축복을 이 제 단에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10 년 동안에 이미 받았습니다. 무식한 자, 어린자, 경험 없는 자, 몸도 마음도 믿음도 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사실상 서울에 500여 교회 가운데 둘째 가는 교세의 은혜 받았습니다. 한국의 3천, 4천 제단 중에서 둘째로 꼽을 수 있는 큰 제단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일찍 말한 그대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뿐입니다.

도망 다니던 우리가 서울에 와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무식쟁이 못난 것들이 모여서 천막을 칠 때는 많은 무리의 손가락질도 없지 않았으나 오늘의 이 제단을 이루심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약속한 서원(誓願)을 변경 맙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니 나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 변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곧 악한 자의 궁전에 살기보다는 진리를 위하여 초막집을 택하는 결심! 불의한 자의 재산보다는 진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의 일용할 양식을! 불의한 자가 누리는 영광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땀방 받아 죽음을 택하는 결심을 합시다.

악한 자로 10 년, 100 년 살려는 것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시다. 우리 온 교회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며 성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성도의 이름으로 죽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1963. 9. 19

# 기 념 행 사

## 7. 조 직

### 준비 위원회

|        |               |      |      |      |      |           |
|--------|---------------|------|------|------|------|-----------|
| 고 문    | 김 창인          | 고 정수 | 강 지순 | 양 석열 | 김 연순 | 이 명달      |
| 준비위원장  | 조 천일          |      |      | 부위원장 | 김 광철 | 황 기성      |
| 위 원    | 김 기원          | 김 천준 | 김 한홍 | 송 순일 | 우 성원 | 위 영환 윤 종순 |
|        | 이 득진          | 조 현명 | 한 명옥 | 허 준  | 홍 수정 |           |
| 서 기    | 최 석주          |      |      |      |      |           |
| 상임 위 원 | 각 분과 위원장 및 차장 |      |      |      |      |           |

### 분과 위원회

#### 1. 연혁 편찬 위원회

|       |                                    |     |      |
|-------|------------------------------------|-----|------|
| 위 원 장 | 김 천준                               | 차 장 | 이 득진 |
| 위 원   | 홍 수정 김 기원 황 기성 김 기정 윤 종성 최 석주 김 성훈 |     |      |
|       | 이 태규 임 승원 이 종운 이 창옥 이 현실           |     |      |

#### 2. 식장 준비 위원회

|       |                    |      |      |
|-------|--------------------|------|------|
| 위 원 장 | 이 득진               | 차 장  | 우 성원 |
| 위 원   | 한 명옥 위 영환 허 준 송 순일 | 예전부원 | 전원   |

#### 3. 회식 준비 위원회

|       |                |           |         |
|-------|----------------|-----------|---------|
| 위 원 장 | 계 수익           | 차 장       | 문 인택    |
| 위 원   | 조 현명 김 한홍 윤 종순 | 박 은철 신 옥희 | 봉사부원 전원 |

## 8. 사 업

### 1. 총현십년사 편찬

### 2. 축하 예배

- (1) 기념 예배: 9월 19일 오전 11시
- (2) 음악 예배(장년 성가대 주최): 9월 19일 오후 7시 30분
- (3) 음악 예배(중·고등학생성가대 주최): 9월 18일 오후 7시 30분
- (4) 음악 예배(유년 성가대 주최):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 (5) 성경 암송 대회(유년 주일 학교 주최):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 후 기

벌써 창밖에는 낙엽이 굴러다니고 유리창에는 성애가 서립니다.

십년사 편집을 서둘렀지만 이처럼 늦게야 햇빛을 보게된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짧은 역사이긴 하나 우리에게는 벅찬 해들이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더 없는 산 교훈의 남김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회고컨대 충현재단이 걸어온 길은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은 말씀 그대로 「좁은길」이며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그래야 하겠읍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걸어 왔으며 충현교회도 그중의 하나가 될것입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온 선진 성도들과 같이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위시 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정(日政)때의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거부하고 만주 광야로 유리했고 북한괴뢰의 소위 기독교연맹 조직이나 주일선거 거부 등으로서 투옥과 박해를 당했고 6·25당시의 교회를 지킨일과 그리고 군사혁명 집권시의 화폐개혁일이 주일이므로 성수 주일을 위하여 신고지 않은 일 등을 이책에 써서 후대에 믿음의 산 교훈을 삼고져 하였으나 과장됨이나 자량이 될까 삼가고 되도록 간추려서 기록해 보았읍니다.

충현은 열살밖에 안된 어린이지만 이 아이를 낳기 위해 그 얼마나 진통이 있었던지요.

십년사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편찬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며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후 1963년 추수 감사절에

십년사 편찬 위원장 김 천 준

## 忠 峴 十 年 史

〈非賣品〉

---

西紀 1963年 11月 30日 印刷

西紀 1963年 12月 2日 發行

發行人 忠峴教會・設立十周年記念  
準備委員會

印刷所 寶 晉 齋 印 刷 所

發行所 忠 峴 教 會

---

013578

《新观察》

# 史平十聯忠

編輯：史平 責任編輯：史平

出版：史平 印刷：史平

全國學聯十聯忠：史平 責任編輯：史平

史平 責任編輯：史平

史平 責任編輯：史平

史平 責任編輯：史平

013278

275.19

ㄹ355층

13278

忠峴十年史 / 충현교회  
설립십주년기념 준비위원회 편.